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  
응역연구과제

arts change the world

#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2008. 12

##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2008년 12월 인쇄

2008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30번지

전화 02-760-4500, 4600

팩스 02-760-4706

www.arko.or.kr

메일 arko@arko.or.kr

이 보고서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 2008. 12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주관기관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연구책임자 : 김소연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자문위원,  
@예술경영 편집장, 전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연 구 원 : 최순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선제 (문화잡지 보일라 편집장)  
김도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기획팀)

설문조사 :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 QX (안혜정, 박소형)

진행총괄 : 황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전문위원)



# 목 차

<b>제1장</b>	<b>서론</b>	
제1절	연구 배경	16
제2절	연구 목적	18
제3절	연구 방법	19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20
<b>제2장</b>	<b>창작활동 현황</b>	
제1절	연구 배경	22
	1. 조사 개요 및 목적	22
	2. 조사 대상 및 방법	23
	3. 주요 조사 내용	24
	4. 조사의 특징	25
제2절	창작자 일반현황	26
	1. 기본 특성	26
	2. 창작자 기반	28
제3절	다원예술활동 일반현황	30
	1. 활동 성격	30
	2. 활동 형태	31
	3. 활동 지역	33
	4. 활동 기간	35
	5. 활동방식	36
	6. 활동 빈도	38
	7. 다원예술 활동과 장르예술활동	39
	8. 지원제도 현황	44
제4절	: 다원예술 창작기반	50
	1. 공간 현황 및 수요	50
	2. 매체 현황 및 수요	56

## 제3장 매개장 현황

제1절 : 조사 개요	60
1. 조사 개요 및 목적	60
2. 조사 방법 및 대상	61
3. 조사 내용	63
4. 연구 절차	65
제2절 : 매개장 현황 개괄	66
1. 매개장의 대상과 범주	66
2. 유형별/지역별 현황	68
3. 시기별 추이	75
4. 공간, 축제, 매체의 발전 양상	78
5. 장르 유형	83
6. 다원예술 활동 성격	85
제3절 : 공간	87
1. 개괄	87
2. 공간 구성	90
3. 주요 사업	94
4. 아카이브 운영	101
5. 참여와 이용	103
제4절 : 축제	107
1. 개괄	107
2. 특징과 역할	112
3. 운영주체의 주요 활동	116



제5절 : 매체	120
1. 개괄	120
2. 유통망과 홍보	123
3. 매개장으로서 매체의 기능과 역할	125
제6절 : 운영인력 현황	128
1. 매개장의 법적 성격 및 활동 성격	128
2. 인력 운영현황	130
<b>제4장 다원예술 창작지형도</b>	
제1절 : 범주와 대상	136
1. 정의	136
2. 범주와 대상	139
제2절 : 창작자 기반 및 활동형태와 성격	141
1. 창작자 기반	141
2. 활동형태	143
3. 활동성격	144
제3절 : 매개장과 다원예술창작활동	145
1. 창작/발표	145
2. 창작자 네트워크	146
3. 창작자 지원	147
4. 지역연계	148
5. 아카이브	149
제4절 : 지역적 특징	151
1. 창작자 창작활동 집중도	151
2. 서울/비서울의 특징적 양상	152

제5절 : 정책현황과 수요	154
1. 지원사업 현황	154
2. 지원 수요 및 지원정책 방향	156
 제5장 결론	 159
 부록	 163
 참고문헌	 173

## 그림 목차

- 〈그림 2-1〉 예술관련 학과 전공여부
- 〈그림 2-2〉 다원예술 활동성격
- 〈그림 2-3〉 다원예술 활동형태
- 〈그림 2-4〉 다원예술 활동방식
- 〈그림 2-5〉 문화예술활동 기반장르
- 〈그림 2-6〉 문화예술활동에서 다원예술활동 비중
- 〈그림 2-7〉 타분야 지원사업 신청여부
- 〈그림 2-8〉 타 분야 지원사업 선정 경험 여부
- 〈그림 2-9〉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사업 연속 신청현황
- 〈그림 2-10〉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사업 선정여부
- 〈그림 2-11〉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 〈그림 2-12〉 공공지원 매개체의 수요현황과 요구
- 〈그림 2-13〉 다원예술 창작자의 주요 홍보매체
- 〈그림 2-14〉 다원예술 창작자의 주요 피드백 매체

## 표 목차

- 〈표 2-1〉 설문조사방법
- 〈표 2-2〉 설문조사지 구성표
- 〈표 2-3〉 다원예술 창작자 기본특성
- 〈표 2-4〉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기본특성
- 〈표 2-5〉 예술계열 세부전공
- 〈표 2-6〉 예술관련 이외 전공
- 〈표 2-7〉 예술 비전공자 전공
- 〈표 2-8〉 다원예술 활동지역
- 〈표 2-9〉 다원예술활동기간
- 〈표 2-10〉 문화예술활동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기간
- 〈표 2-11〉 소속된 단체의 성격
- 〈표 2-12〉 연간 발표 횟수
- 〈표 2-13〉 전체문화예술활동 기간 대비 다원예술활동기간의 비율
- 〈표 2-14〉 타 분야 지원사업 분야
- 〈표 2-15〉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지원공모사업 현황
- 〈표 2-16〉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금액
- 〈표 2-17〉 타 기관 지원받은 사업의 활동유형
- 〈표 2-18〉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지원받은 사업 기관
- 〈표 2-19〉 타 기관 지원금액
- 〈표 2-20〉 다원예술 창작자의 창작공간 유형
- 〈표 2-21〉 다원예술 창작자의 발표공간 유형
- 〈표 2-22〉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공공지원이 필요한 매개체

- 〈표 3-1〉 매개장 유형별 현황
- 〈표 3-2〉 매개장 지역별/유형별 분포
- 〈표 3-3〉 서울-지방 유형별 분포 비교
- 〈표 3-4〉 매개장 지역 및 유형 분포 개괄
- 〈표 3-5〉 운영단체를 중심으로 한 매개장 변화 추이
- 〈표 3-6〉 매개장 연도별 설립추이
- 〈표 3-7〉 매개장 운영단체 연도별 설립추이
- 〈표 3-8〉 매개장의 발전 유형
- 〈표 3-9〉 매개장 장르 기반
- 〈표 3-10〉 매개장 세부 활동 장르
- 〈표 3-11〉 매개장 다원예술 활동 성격
- 〈표 3-12〉 공간 일반 현황
- 〈표 3-13〉 공간 소유형태
- 〈표 3-14〉 보유 공간 유형
- 〈표 3-15〉 보유 공간 상세
- 〈표 3-16〉 공간 사업 유형
- 〈표 3-17〉 공간 창작/발표/축제 현황
- 〈표 3-18〉 공간 레지던스 운영현황
- 〈표 3-19〉 공간 지역연계 사업
- 〈표 3-20〉 공간 예술가 교육/지원 프로그램
- 〈표 3-21〉 축제 설립연도 및 운영 주체
- 〈표 3-22〉 축제 운영방향
- 〈표 3-23〉 축제의 장르
- 〈표 3-24〉 2008년 축제 개최 현황
- 〈표 3-25〉 축제 참여예술가 지원
- 〈표 3-26〉 축제 운영주체의 주요 활동
- 〈표 3-27〉 매체 일반 현황
- 〈표 3-28〉 매체 운영인력 현황
- 〈표 3-29〉 매체별 특징
- 〈표 3-30〉 매체의 유통망과 홍보
- 〈표 3-31〉 매개장의 법적 성격
- 〈표 3-32〉 매개장의 활동 성격
- 〈표 3-33〉 인력수 및 근무형태
- 〈표 3-34〉 자원봉사 운영 현황
- 〈표 4-1〉 다원예술 명칭과 정의에 대한 전문가 그룹 조사 결과
- 〈표 4-2〉 다원예술 매개장 운영자들의 다원예술 인식
- 〈표 4-3〉 매개장의 국제교류활동
- 〈표 4-4〉 매개장에서 운영하는 작가 홍보 프로그램
- 〈표 4-5〉 매개공간 지역연계 사업
- 〈표 4-6〉 축제 지역연계 프로그램
- 〈표 4-7〉 거주지에 따른 창작형태 교차 심화분석
- 〈표 4-8〉 매개장 지원수요 인터뷰
- 〈표 4-9〉 다원예술현장 네트워크 수요

# 제1장

---

## 서론

제1절 : 연구 배경

제2절 : 연구 목적

제3절 : 연구 방법

제4절 : 연구의 기대효과

## 제1절 연구 배경

-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예술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장르체계나 예술개념으로 수렴되지 않는 새로운 예술활동과 예술주체, 예술가치를 요구하고 있음.
- 다원예술분야는 이러한 새로운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 진작함으로써 우리 예술계의 창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분야임.<sup>1)</sup>
-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다원예술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역재단 및 지자체에서도 점차 다원예술을 별도의 지원정책 대상으로 주목하는 등 다원예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sup>2)</sup>
- 이에 따라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이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되어 왔음.<sup>3)</sup>
- 그간의 정책연구는 다원예술이라는 새로운 정책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개념과 정의), 기존 장르 및 관습과 제도를 가로지르는 다원예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전문성과 구체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반면 창작자 및 창작활동 등 창작현황에 대한 조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다원예술의 경우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제도의 틈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실태조사에서는 그 현황이 드러나지 않음.
- 한편 그간의 정책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다원예술’은 생성하고 있는 예술장르

1) ‘다원예술’의 정의는 다원예술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정책토론, 포럼, 정책연구 등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원회별 사업 혁신방안」,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의 정책용어로서의 다원예술의 정의를 따른다(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다원예술창작지형도 제1절 대상과 범위’ 참조).

2) 2007년 각 지역재단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무대예술제작비주로 지원 사업에서는 ‘다원예술’을 연극, 무용, 음악 등과 함께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다원예술 관련 정책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안이영노 등, 「다원예술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이진아 등, 「다원예술 현장 정책 수요 연구」, 2008  
 우주희,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7

로 개념의 개방성이 요구되지만,<sup>4)</sup> 개념의 개방성, 지원영역의 포괄성으로 다른 한편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모호함, 지원대상과 영역의 모호함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책연구와 포럼 등은 ‘선행적 차원의 미학적 정의나 개념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다원예술 제도 정책의 기본 과제라 할 다원예술의 개념과 정의를 위해 창작현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

4) "다원예술에 대해 정책 운용을 위한 개념의 정의는 필요하나 실험, 새로운 예술주체, 문화행동 등 예술개념 예술가치의 확장 등이 다원예술활동장에서 포괄되도록 함" (안이영노, 같은글, p.41)  
다원예술에 대한 개방적 접근은 우주희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임.

## 제2절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다원예술 창작자 기본 실태 및 활동형태, 활동기간, 활동방식, 활동범주에 대한 조사 분석, 다원예술활동과 여타 문화예술활동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원예술 창작자 및 창작활동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함.
- 본 연구는 최근 다원예술 활동에서 주목받고 있는 매개활동에 대한 파악을 위해 축제, 공간, 매체 등 다원예술 매개장을 조사 분석함.
- 본 연구는 창작자 현황 및 매개장 현황 교차 분석을 통해 다원예술 창작 현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봄.
- 본 연구는 창작자 현황 조사대상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신청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현장의 반응을 조사 분석함.



### 제3절 연구 방법<sup>5)</sup>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공모사업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원예술 창작자 및 창작활동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지원제도에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창작자 및 창작활동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의 한계는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이 다원예술분야에서는 가장 선구적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는 지원제도는 물론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분야 공모사업은 현재 제도에 포착된 다원예술 분야를 가장 넓게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설문대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선 기초조사로서 조사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함.

- 다원예술 창작 활동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통계조사 분석과 함께 여타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함.
- 창작현황 통계조사의 한계(조사대상의 한계, 온라인 설문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창작-매개-향수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개장 조사 분석을 실시

창작현황 통계조사가 창작현황을 통계 수치를 통해 파악한다면 매개장 조사는 사례 연구로 유형 및 지역별 주요 사례를 선정 심화조사를 실시

온라인 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를 통해 매개장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

- 창작자현황 조사와 매개장 조사를 통해 다원예술 창작지형도를 구성함.

5) 통계조사 및 매개장 조사에 대한 내용은 제2장 창작활동 현황, 제3장 매개장 현황의 각 1절 조사개요 참조.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원예술 창작자 및 창작활동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로 다원예술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본 연구는 다원예술 창작자 DB의 기초설계로 활용함.
- 본 연구는 다원예술 창작 현황조사를 통해 다원예술 분야의 기초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제2장

---

### 창작활동 현황

제1절 : 연구 배경

제2절 : 창작자 일반현황

제3절 : 다원예술활동 일반현황

제4절 : 다원예술 창작기반

## 제1절 연구 배경

### 1. 조사 개요 및 목적

#### 1. 조사 개요

- 조사 과제 : 다원예술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창작현장 통계조사
- 조사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사업 다원예술분야 지원 사업 신청자(2006년~2008년)
- 조사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 기간 : 2008년 10월 6일 ~ 2008년 10월 17일
- 연구 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1월 20일

#### 2. 조사 목적

- 다원예술분야 창작자, 창작활동의 특성 및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다원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함.
- 여타 문화예술활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원예술 창작자 창작활동의 특성을 파악함.
- 다원예술 제도 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2. 조사 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정기공모사업 신청자
  - 2006년 ~2008년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함.
  - 정기공모사업 신청자, 신청단체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다원예술분야 지원 사업 신청자로 조사대상을 제한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원예술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원예술분야가 지원분야로 독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2008년 사업 신청자로 조사대상을 제한함.
- 온라인 조사를 위한 이메일 주소 수집의 이유로 사업 신청단체 대표 및 실무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2. 조사 방법

〈표 2-1〉 설문조사방법

구분	내용
조사 도구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설문조사
설문배포 및 수거방식	온라인 조사 : 다원예술 기금지원사업 신청자 이메일리스트를 확보하여 조사지를 배포 설문참여를 유도함
표본집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 신청자 1182명
응답자 수	131명
분석도구	SPSS12.0을 통한 분석

### 3. 주요 조사 내용

- 다원예술영역 활동 유형
- 문화예술 활동 유형
- 다원예술 이외의 문화예술활동 유형
- 기본정보

〈표 2-2〉 설문조사지 구성표

다원예술영역 활동유형	문화예술활동유형
다원예술영역 활동 기본현황	
6. 활동지역 7. 활동기간 8. 연간 작품발표 평균횟수	1. 문화예술 활동 유형 2. 주요 활동 3. 활동기간
작업의 성격과 유형	
4. 문화예술 작업과 성격 5. 다원문화예술 작업형태	다원예술 이외의 문화예술활동 유형
단체소속여부 및 단체 성격	20.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되는 비율 21. 활동 장르 22. 활동 지역 23. 활동 기간 24. 연간 작품발표 평균횟수
9. 다원문화예술 활동방식 9-1.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성격 9-2.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성격	
지원사업 수혜정도 및 분포	
10. 문화예술위 지원여부 11. 타 기관 지원여부 11-1. 지원받은 사업 활동유형 11-2. 지원받은 기관, 건수, 액수, 사업명 12. 다원예술분야로 타 장르 중복지원 받은 여부	기본 정보
공간 및 매체(매개기능) 수요	전공
13. 다원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16. 지원이 필요한 매개기능 17. 지원받고 있는 매개공간	25. 예술관련 전공여부 25-1. 세부전공 25-2. 예술관련 이외의 전공 26. 최종학교 전공
공간 및 매체 활용 현황	일반정보
14. 창작공간 유형 15. 발표공간유형 18. 홍보방법 19. 비평/피드백 방법	성별 연령 직업고용형태 거주지

## 4. 조사의 특징

### 1. 조사 대상

- 조사 대상이 한정돼 다원예술분야 창작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가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논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 공모사업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이 다원예술분야에서는 가장 선구적이라는 점 등으로, 위의 조사대상이 현재 제도에 포착된 다원예술 분야를 가장 적확하면서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메일주소 수집의 이유로 조사대상이 단체의 대표자 및 책임 실무자의 비율이 높으나 조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sup>6)</sup>

### 2. 조사 설계

- 다원예술 창작자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의 기본현황, 단체 소속여부 및 성격, 공간 및 매체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의 항목을 설계함.
-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전제로 두지 않고, 다원예술 정기공모사업에 신청한 개개인의 다원예술 및 예술활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창작자들의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함.
- 다원예술분야 지원영역의 모호함. 특히 타 장르 지원영역과의 중복이 문제로 자주 지적되어온 만큼 타장르 활동과의 중복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을 설계함.
- 문화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와 동일한 항목을 포함하여 설계함으로써 일반 문화예술 창작자와 다원문화예술 창작자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3. 응답자

- 전반적으로 한번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sup>7)</sup> 즉 응답자 및 이들의 예술 활동은 현 제도에서 다원예술 활동에 적극적인 창작자인 것으로 판단됨.

6) 응답자 특성에서 단체 대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차분석에서 대표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음.

7) 설문조사 분석결과 응답자 중 100%가 2006년 ~ 2008년 지원공모사업에 1회 이상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 제2절 창작자 일반현황

## 1. 기본 특성

〈표 2-3〉 다원예술 창작자 기본 특성

성별		고용형태	
남	59.5%	자영업/고용주	22.9%
여	40.5%	전업작가/자유전문직	44.3%
전체	100%	정규 피고용직	14.5%
		임시 피고용직	11.5%
연령		기타	6.9%
11~20세	0%	전체	100%
		거주지	
21~30세	9.9%	서울	55.0%
		인천	1.5%
31~40세	51.9%	경기도	12.2%
		충청도	13.0%
41~50세	28.2%	경상도	6.1%
		강원도	2.3%
51~60세	9.2%	전라도	6.9%
		제주도	1.5%
60세 이상	0.8%	기타	1.5%
		전체	100%

- 응답자의 59.5%가 남성, 40.5%가 여성임.
-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30대 51.9%, 40대 28.2%, 20대 9.9%, 50대 9.2%임.
-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업 작가 및 자유 전문직의 직업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4.3%임. 자영업 및 고용주인 사람이 22.9%, 정규 피고용직인 사람이 14.5%이며, 임시 피고용직인 사람도 11.5%임.
- 응답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체의 55.0%를 차지함. 그 외에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13.0%,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12.2%,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6.9%, 경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6.1%임.



〈표 2-4〉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기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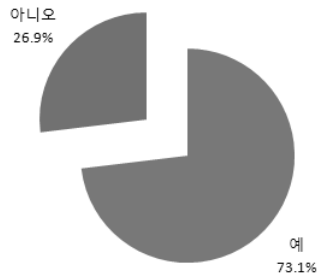
n=2000

성별		고용형태	
남	65.3%	자영업/고용주	13.4%
여	34.7%	전업작가/자유전문직	33.8%
전체	100%	정규 피고용직	30.1%
		임시 피고용직	8.8%
		기타	14.0%
연령		전체	100%
11-20세	0%	거주지	
21-30세	13.0%	서울	42.2%
31-40세	23.7%	인천	24.8%
		경기도	
41-50세	26.1%	충청도	7.3%
		경상도	11.9%
51-60세	18.3%	강원도	2.5%
		전라도	10.7%
60세 이상	19.0%	제주도	1.5%
전체	100%	기타	0%
		전체	100%

-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임.
- 성별에서는 다원예술 창작자 특성과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연령별 비교분석 결과, 일반 문화예술인의 경우, 50세 이상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다원예술 창작자의 경우 30대의 비율이 높음.
- 고용형태에 있어서 전업작가 및 자유 전문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같으나, 다원예술창작자의 경우 자영업 및 고용주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 정규 피고용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 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다원예술 창작자 집단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 창작자 기반

n=131



〈그림 2-1〉 예술관련 학과 전공여부

- 정규교육과정(초·중·고·대학교(원))에서 예술관련 학과 전공 여부를 설문한 결과 전체의 73.1%가 전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sup>8)</sup>

### 1. 예술계열 세부전공

〈표 2-5〉 예술계열 세부전공

n=95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6.1%	39.0%	1.2%	0%	6.1%	11.0%
연극/영화/영상	무용	예술경영	미학/예술학	기타	전체
14.6%	6.1%	4.9%	3.7%	7.3%	100%

- 정규교육과정(초·중·고·대학교(원))에서 예술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세부전공을 질문한 결과 미술을 전공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연극/영화/영상이 14.6%,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11.0%로 나타남.
- 예술경영, 미학/예술학 등 이론을 중심으로 전공을 한 응답자도 8.6%임.

8)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관련 학과 전공 여부와 비교분석한 결과, 전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다원예술 창작자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나,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음.

## 2. 예술관련 이외의 전공

〈표 2-6〉 예술관련 이외 전공

n=95

인문계열	사회계열	법정계열	상경계열	사범계열	가정계열	공학계열
18.9%	3.2%	1.1%	0%	5.3%	0%	6.3%
농학계열	의학계열	이학계열	기타	예술관련 이외의 전공을 하지 않았음		전체
3.2%	0%	1.1%	4.2%	56.8%		100%

- 정규교육과정(초·중·고·대학교(원))에서 예술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예술관련 이외의 전공을 한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예술관련 이외의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6.8%임.
- 전체 응답자의 43.2%는 예술 이외의 다른 전공을 하였다고 응답함. 이 중 인문계열을 전공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18.9%로 가장 높음.

## 3. 예술 비전공자 전공

〈표 2-7〉 예술 비전공자 전공

n=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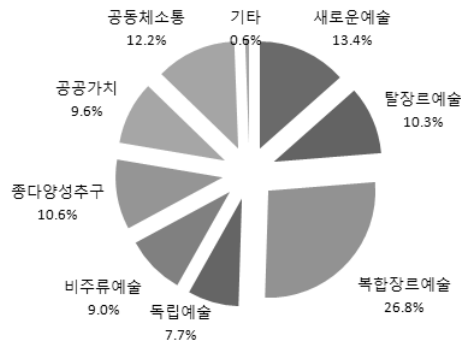
인문계열	사회계열	법정계열	상경계열	사범계열	가정계열	공학계열
37.8%	8.1%	8.1%	10.8%	0%	0%	10.8%
농학계열	의학계열	이학계열	기타	해당사항 없음		전체
0%	5.4%	10.8%	2.7%	5.4%		100%

- 정규교육과정(초·중·고·대학교(원))에서 예술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부 전공을 질문한 결과 인문계열을 전공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7.8%임.

## 제3절 다원예술활동 일반현황

## 1. 활동 성격

복수응답



〈그림 2-2〉 다원예술 활동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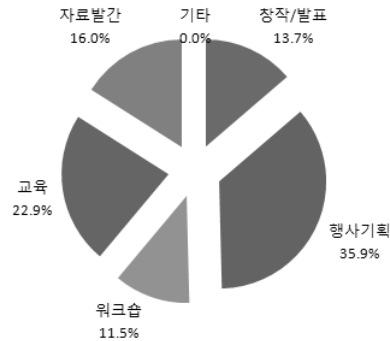
- 새로운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 예술을 실험예술 계열이라고 보았을 때, 실험예술 계열의 활동이 전체의 50.0%임. 한편 공동체 소통, 공공가치, 종다양성 추구 등 가치 지향적이나 정체성을 규정한 응답이 32.4%를 차지함.
- 다원예술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실험예술’ 인데 반해 예술가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예술활동도 다원예술의 비중 있는 활동으로 나타남.

## 1) 심층분석 - 거주지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성격

- 거주 지역에 따라 다원예술 활동 성격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체 성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서울 7.2%, 인천 및 경기지역 21.7%, 수도권 외 지역 17.4%).

## 2. 활동 형태

n=131



〈그림 2-3〉 다원예술 활동형태

- 다원예술영역에서의 주요한 창작활동 형태를 분석한 결과 행사기획의 비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교육이 22.9%, 자료발간이 16.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1) 심층분석 - 다원예술활동 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창작형태

- 다원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창작형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 10년 이하의 다원예술 활동기간을 가진 사람의 경우 행사기획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88.8%로 높은 반면, 11년에서 19년의 활동기간을 가진 사람은 창작 발표 활동을 하는 비율이 3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20년 이상 다원예술 활동을 한 사람의 경우 교육(36.4%) 및 자료발간(27.3%)의 활동을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2) 심층분석 - 거주지에 따른 다원예술 창작형태

- 거주지역에 따라 다원예술 창작형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사기획의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서울지역에

- 거주하는 집단에서 27.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워크숍 활동에 27.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창작 발표활동에서 22.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3. 활동 지역

- 다원예술영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역을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한 분석 결과임.
-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의 비율이 높음.

#### 1) 심층분석 - 문화예술활동지역<sup>9)</sup>과 다원예술 활동지역 비교분석

- 문화예술 전반의 활동지역과 다원예술 활동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활동 지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문화예술 전반의 활동 지역을 설문한 결과 다원예술 활동지역과 동일하게 서울 지역에 대한 응답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9) 설문 설계에서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이 다원예술로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원예술 활동 이외의 여타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원예술활동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문항을 만들었음. 이하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문화예술활동' 은 다원예술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의미함.

〈표 2-8〉 다원예술활동 지역

지역	응답자 수	세부 지역	응답자 수
서울	71	마포	6
		양천구	1
		합정	1
		종로	1
		해화	1
경기도	17	성남	3
		여주	1
		남양주	2
		연천	2
		시흥	1
		수원	1
		과천	1
		안성	1
강원도	3	의정부	2
		동해시	1
		원주시	1
대전	8	춘천시	1
대구	2	중구	1
제주도	3	달서구	1
인천	4		
		남구	1
전라북도	5	중구	1
		진안군	1
		익산	1
전라남도	2	전주	3
		목포, 신안	1
충청북도	4	청주시	2
		청원	1
충청남도	6	천안	1
경상남도	1	진주	1
경상북도	1	안동	1
부산	2		
광주	2		
전국	2		
지방곳곳	1		
해외	2		
미국	1	뉴욕	1

\* 세부 지역은 세부 지역 응답자 수만 표시함.



## 4. 활동 기간

〈표 2-9〉 다원예술활동기간

	5년 이하	6년~10년이하	11년~19년이하	20년 이상	전체
문화예술활동기간	16.0%	34.3%	26.9%	23.1%	100%
다원예술 활동기간	54.2%	24.5%	6.1%	13.1%	100%

n=131

- 문화예술활동을 한 기간과 다원예술활동을 한 기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활동을 한 기간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다원예술활동을 한 기간은 10년 이하로 활동한 비율이 78.7%로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활동의 평균적인 활동기간은 12년 3개월인 반면, 다원예술활동은 평균적인 활동기간이 7년 4개월임.

### 1) 심층분석 - 문화예술 활동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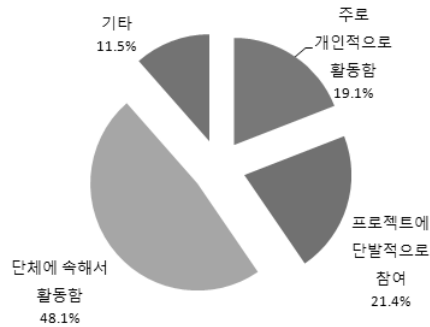
〈표 2-10〉 문화예술활동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기간

전체 다원	5년 이하	6년~10년이하	11년~19년이하	20년 이상	전체
5년 이하	95.0%	45.8%	32.3%	6.7%	41.1%
6년~10년이하	5.0%	54.2%	38.7%	42.3%	40.3%
11년~19년이하	0%	0%	22.6%	20.0%	10.1%
20년 이상	0%	0%	6.5%	30.0%	8.5%
전체	100%	100%	100%	100%	100%

- 문화예술 활동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기간을 교차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전반의 활동을 5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다원예술 활동을 한 기간이 95.0%임.
- 6년 이상 문화예술활동을 한 사람의 경우, 다원예술 활동을 10년 이하로 활동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 활동을 오래 할수록 다원예술활동을 한 기간 역시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함.
- 본인의 작업 활동 중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활동기간이 평균적으로 7년 4개월이며, 교차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다원예술 활동을 10년 미만으로 활동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5. 활동방식

n=131



〈그림 2-4〉 다원예술 활동방식

- 다원예술영역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방식을 설문한 결과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전체의 48.1%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21.4%,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19.1% 순서임.

### 1)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기간에 따른 활동방식

- 다원예술 활동기간에 따라 활동방식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20년 이상 다원예술 활동을 해온 집단의 경우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비율이 81.8%로 높게 나타남.

### 2) 심층분석 - 거주지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방식

- 거주지역에 따라 다원예술 활동방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서울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서울 41.7%, 인천/경기 61.1%, 수도권 외 지역 53.7%).

## 1. 단체 성격

〈표 2-11〉 소속된 단체의 성격

n=63

단체의 법적 성격	비법인 사설단체	법인 단체	기타	전체	
	57.1%	38.1%	4.8%	100%	
단체의 활동 성격	전문예술단체	창작자네트워크모임	기타	전체	
	76.2%	15.9%	7.9%	100%	
단체에서의 직급	대표자	책임/관리자급	일반 활동가	기타	전체
	69.9%	22.2%	7.9%	0%	100%

- 전체 응답자 중 단체에 속해서 다원예술분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한 문항임.

### 가. 단체의 법적 성격

-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의 법적 성격을 질문한 결과, 비법인 사설단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법인 단체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8.1%임.<sup>10)</sup>
- 국·공립 단체에 속해 있는 응답자는 0%임.

### 나. 단체의 활동성격

- 본인이 속해있는 단체의 활동 성격을 설문한 응답 결과, 전문예술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10) 2006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결과, 문화예술 전반의 문화예술단체의 법적성격과 비슷한 비율인 것을 확인할. 비법인 사설단체 56.6%, 국공립 전속단체 5.6%, 법인단체 32.8%, (법인단체 37.8%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 상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그 중 사단법인의 비율이 35.8%로 대부분을 차지함)

## 6. 활동 빈도

〈표 2-12〉 연간 발표 횟수

	n=131					
	0회	1회 ~ 2회	3회~5회	6회~10회	11회 이상	전체
다원예술활동빈도	2.3%	54.2%	24.5%	6.1%	13.1%	100%
문화예술활동빈도	9.2%	38.9%	20.7%	19.2%	1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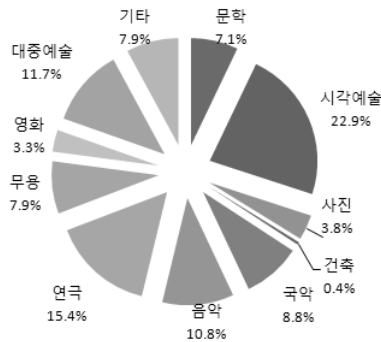
- 다원예술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전반의 연간 작품 발표기회와 다원예술 작업의 연간 작품 발표기회를 비교분석한 결과임.
- 다원예술작업의 연간 작품 발표기회를 설문한 결과 평균 1회 ~ 2회 발표기회를 갖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작업의 발표 횟수 역시 평균 1회 ~ 2회 발표기회를 갖는 비율이 38.9%의 비율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다원예술활동 빈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

## 7. 다원예술 활동과 장르예술활동

### 1. 문화예술 활동 기반 장르

〈그림 2-5〉 문화예술활동 기반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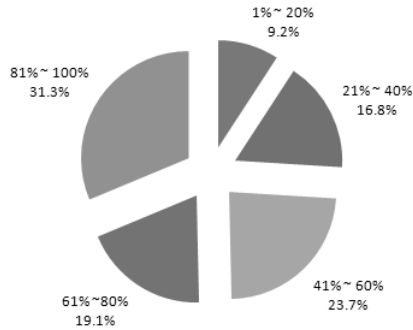
복수응답



- 기존의 장르 중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장르를 모두 선택하게 하였음. 설문분석 결과 시각예술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연극 15.4%, 대중예술 11.7%, 음악 10.8% 순서임.
- 이를 장르별로 세부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시각예술에서는 설치미술이 28.1%, 미디어 아트가 28.1%로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임.
  - 음악 분야에서는 작곡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타악이 22.2%로 그 뒤를 이음.
  - 연극 분야에서는 연출과 제작/기획이 34.2%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음. 극작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10.5%임.
  -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제작/기획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평론/이론이 13.8%, 작곡/작사가 10.3% 순서임.

## 2. 문화예술활동에서 다원예술 활동 비중

n=131



〈그림 2-6〉 문화예술활동에서 다원예술활동 비중

- 본인이 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예술 작업 중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되는 작업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임.
- 본인의 작업 중 81%~100%가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41%~60%라고 응답한 사람이 23.7%로 높음.

〈표 2-13〉 전체문화예술활동 기간 대비 다원예술활동기간의 비율

n=131

다원예술활동기간 비율	비율
1%~20%	3.9%
21%~40%	21.1%
41%~60%	21.1%
61%~80%	13.3%
81%~100%	40.6%

- 다음은 전체 문화예술활동 기간 대비 다원예술 영역에 활동한 기간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비율을 환산함.<sup>11)</sup>
- 응답자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기간에서 다원예술활동 기간의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 81~100%가 전체의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에 21%~40%, 41%~60%가 21.1%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11) 다원예술활동기간 비율=(다원예술활동기간/문화예술 활동기간) x 100%

### 3. 다원예술분야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분야(장르) 지원 사업 신청여부

n=131



〈그림 2-7〉 타분야 지원사업 신청여부

- 다원예술분야에서 지원받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분야(장르)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험여부를 설문한 결과,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2%임.
- 반면, 신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5.8%임. 즉 자신의 예술활동이 여타의 장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창작자의 비율이라 볼 수 있음.

1)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 기간에 따른 다원예술분야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분야(장르) 지원 사업 신청여부

- 다원예술 활동 기간에 따라 다원예술분야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분야 지원사업에 신청한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다원예술 활동기간이 길수록 타분야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12)</sup>

12) 5년 이하 50.9%, 6년에서 10년 이하 53.8%, 11년에서 19년 이하 61.5%, 20년 이상 72.7%

## 가. 선정 여부

n=131



〈그림 2-8〉 타 분야 지원사업 선정 경험 여부

- 다원예술분야에서 지원받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분야(장르)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설문한 결과,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1.2%, 선정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8.8%임.
- 다원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분야(장르)에 선정된 경험이 31.2%인 것은 다원예술분야가 일정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1) 심층분석 1.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사업 연속 신청여부에 따른 타 분야(장르) 지원 사업 선정여부

-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 사업에 매년 연속하여 신청한 경험에 따라 타 장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다원예술영역 사업에 지원 신청한 경험이 많을수록 타 분야(장르)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sup>13)</sup>

13) 1건 신청 64.8%, 2건 신청 16.9%, 3건 신청 18.3%



## 나. 지원받은 사업의 분야

〈표 2-14〉 타 분야 지원 사업 분야

N=70	
타 분야 지원 사업 분야	비율
문학	7.0%
시각예술	28.2%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36.6%
전통예술	11.3%
기타	16.9%
전체	100%

- 다원예술분야에 지원받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분야(장르)의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의 분야(장르)를 질문한 결과임.
- 공연예술분야에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시각예술 분야에 신청한 사람이 28.2%로 높게 나타남.
- 공연예술분야에서 음악, 연극, 무용을 합한 비율인 것을 감안하면, 시각예술분야의 지원 사업에 신청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다원예술영역과 시각예술영역의 교차지점이 가장 높은 것이라 해석될 수 있음.

## 8. 지원제도 현황

### 1.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사업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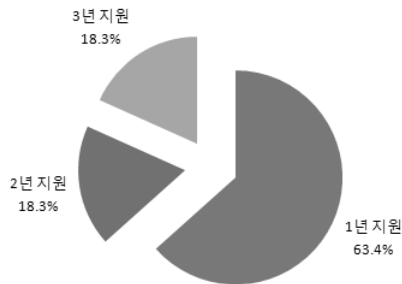
〈표 2-15〉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지원공모사업 현황

	신청건수	지원건수	평균 지원 금액
2006년 지원공모사업	410	91	19,009,341원
2007년 지원공모사업	495	94	24,110,426원
2008년 지원공모사업	526	84	15,040,476원

- 2006년부터 2008년 지원공모사업에 신청 건수와 지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지원 건수는 2008년에 84건으로 줄어들었음.
- 정기공모사업 다원예술분야 지원금액은 2006년 19,009,341원, 2007년 24,110,426, 2008년 15,040,476원임.

### 가.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사업 연속 신청현황

n=131



〈그림 2-9〉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사업 연속 신청현황

- 설문응답자의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 사업에 연속하여 신청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한 해에만 신청한 사람이 전체의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년 연속 신청한 사람이 18.3%, 3년 연속 신청한 사람이 18.3%임.

- 1)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다원예술영역 사업 연속 신청 현황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연속하여 신청한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3년 연속 신청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62.5%).

- 2)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형태에 따른 다원예술영역 사업 연속 신청현황
- 다원예술영역에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형태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다원예술영역 사업에 연속하여 신청한 경험을 교차 분석한 결과, 자료 발간을 주로 하는 사람의 경우 3년 연속 지원 신청을 한 비율이 25.0%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교육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경우 한 해에만 신청을 한 비율이 2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3) 심층분석 - 다원문화예술 활동 성격에 따른 다원예술영역 사업 연속 신청현황
- 다원예술영역에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영역 사업에 연속하여 신청한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독립예술(13.1%)과 비주류 예술(13.1%) 분야에서 3년 연속 신청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나.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 금액

〈표 2-16〉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금액

	2006년 지원공모사업	2007년 지원공모사업	2008년 지원공모사업
1,000만원 미만	38.1%	30.4%	31.5%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2.4%	58.7%	53.7%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4%	6.5%	9.3%
5,000만원 이상~10,000만원 미만	7.1%	2.2%	3.7%
10,000만원 이상	0%	2.2%	1.9%
전체	100%	100%	100%
응답자 수	42명	46명	54명

-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사업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을 설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 다원예술영역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 사업 선정여부

n=131



〈그림 2-10〉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 사업 선정여부

- 다원예술영역의 작업 활동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선정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6.5%임.
-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5%임.
- 이는 다원예술 영역의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음과 동시에 일정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하지만 아직까지 다원예술영역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술위원회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1) 심층분석 - 거주지에 따른 다원예술영역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 사업 선정여부

- 거주지역에 따라 다원예술영역의 작업활동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교차분석한 결과, 서울 외 지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 중 인천/경기 지역에서 55.6%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서울

38.9%, 수도권 외 지역 46.3%).

2)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다원예술영역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 사업 선정여부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라 다원예술영역의 작업 활동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교차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비해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심층분석 - 장르 기반에 따른 타 기관 지원 사업 선정 여부

- 자신의 기반이 되는 예술 장르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 사업 선정 여부를 교차 분석 한 결과, 시각예술(56.4%), 사진(88.9%), 영화(62.5%) 분야에서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대중예술(61.9%), 국악(76.9%)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가. 지원받은 사업의 활동유형

〈표 2-17〉 타 기관 지원받은 사업의 활동유형

n=57

타 기관 지원 사업 활동유형	비율
창작활동 사업	64.9%
문화예술교육 사업	21.1%
공간 활성화 사업	5.3%
국제 예술기구 활동지원 사업	0%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0%
기타	8.8%
전체	100%

- 다원예술영역의 작업 활동으로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선정된 사업의 활동유형을 설문한 결과, 창작활동 사업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21.1%, 공간 활성화 사업이 5.3%임.

## 나. 지원받은 사업 기관

〈표 2-18〉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지원받은 사업 기관

지원 기관	비율
지역문화재단	41.4%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금	30.0%
문화예술분야 사설기금	2.9%
문화예술분야 외 공공기금	17.1%
문화예술분야 외 사설기금	8.6%
전체	100%

복수응답

- 다원예술분야의 창작활동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선정된 사업의 기관을 복수응답한 설문결과,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금을 통한 지원이 30.0%, 문화예술분야 외 공공기금을 통한 지원이 17.1%임.
- 전반적으로 공공기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다. 지원 액수<sup>14)</sup>

〈표 2-19〉 타 기관 지원금액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금	문화예술분야 사설기금	문화예술분야 외 공공기금	문화예술분야 외 사설기금
1,000만원 미만	60.0%	47.4%	66.7%	54.5%	100%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0.0%	36.8%	0%	9.1%	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3.3%	5.3%	33.3%	36.4%	0%
5,000만원 이상~10,000만원 미만	3.3%	5.3%	0%	0%	0%
10,000만원 이상	3.3%	5.3%	0%	0%	0%
전체	100%	100%	100%	100%	100%
응답자 수	31	20	3	12	6

14) 선정받은 회당 평균 액수에 대한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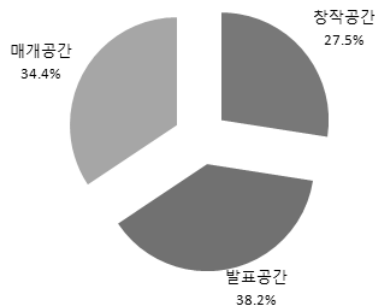
- 모든 기관에서 1,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음.
-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금의 경우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문화예술분야 사설기금, 문화예술분야 외 공공기금의 경우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기금의 액수가 높음.

## 제4절 다원예술 창작기반

### 1. 공간 현황 및 수요

#### 1.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n=131



〈그림 2-11〉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 다원예술영역의 창작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을 설문한 결과, 발표공간(전시, 공연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8.2%, 매개공간(타 창작자, 장르와의 만남, 정보교류 등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4.4%로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남.
- 창작공간(창작/연습/집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7.5%임.
- 창작공간, 매개공간, 발표공간 전반적으로 수요가 있지만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발표공간 및 매개공간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창작공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1)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 다원예술영역에서 활동하는 방식에 따라 창작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52.0%가 발표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반면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매개공간이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0%임.



### 2)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형태에 따른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 다원예술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형태에 따라 창작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창작 발표와 행사기획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발표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높음.
- 반면, 워크숍과 교육이 주로 활동하는 형태인 사람의 경우 매개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워크숍 40.0%, 교육 46.7%).
- 창작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워크숍 활동(40.0%)을 주로 하는 집단과 자료발간(38.1%)을 주로 하는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3) 심층분석 - 거주지에 따른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 거주지역에 따라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창작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서울 지역에서는 발표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인천/경기(50.5%)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43.9%)에서 서울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 2. 창작공간 유형

〈표 2-20〉 다원예술 창작자의 창작공간 유형

n=131	
창작공간 유형	비율
개인소유	14.5%
공동소유	7.6%
공공시설 유상임대	6.9%
사설시설 유상임대	41.2%
공공시설 무상임대	7.6%
사설시설 무상임대	3.1%
자택을 제외한 별도의 창작공간이 없다	19.1%
전체	100%

- 다원예술분야 창작자들의 창작공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설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자택을 제외한 별도의 창작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9.1%, 개인소유의 창작공간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5%임.

#### 1)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창작 공간 유형

- 다원예술 활동을 하는 방식에 따라 창작공간 소유 현황을 교차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과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자택을 제외한 별도의 창작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사설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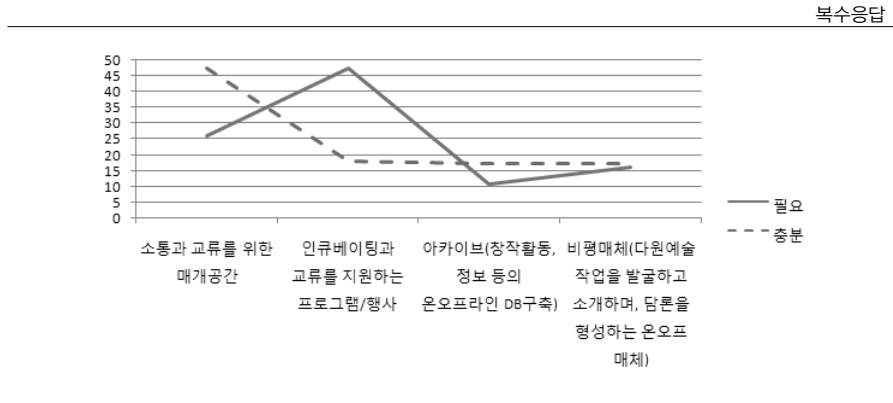
### 3. 발표공간 유형

〈표 2-21〉 다원예술 창작자의 발표공간 유형

n=131	
발표공간 유형	비율
공공정규 문화예술시설	13.7%
사설정규 문화예술시설	35.9%
공공비정규 문화예술시설	11.5%
사설비정규 문화예술시설	22.9%
기타	16.0%
전체	100%

- 다원예술분야 창작자들의 발표공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설정규 문화예술시설(사설공연장 및 갤러리)을 활용하여 발표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사설비정규 문화예술시설(카페, 대안공간 등)이 22.9%로 높음.
- 이 밖에 공공정규 문화예술시설(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아르코 예술극장, 현대미술관 등)(13.7%), 공공비정규 문화예술시설(공원, 수련원 등의 강당)(11.5%)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기타 의견으로는 출판물 통해 도서를 배포하거나 작품집 발간함, 프로젝트 마을 공간과 야외공간, 공원, 개인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발표를 함 등이 있음.

#### 4. 가장 필요한 공공지원 매개체



〈그림 2-12〉 공공지원 매개체의 수요현황과 요구

- 다원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과 정보의 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 및 매체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임.
- 현재 소통과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해 도움 받고 있는 곳을 복수 응답한 결과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7.3%임.
- 그 다음으로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행사가 18.2%, 아카이브와 비평매체가 17.3%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 공공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문 분석한 결과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행사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이 26.0%, 비평매체가 16.0%, 아카이브가 10.7%임.
- 요약하자면, 현재 가장 충족되는 공간은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이며, 가장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행사임.
- 반면 아카이브와 비평매체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지만, 필요 욕구도 낮음.

##### 1) 심층분석 - 문화예술 활동유형에 따른 공공지원이 필요한 매개체

- 응답자의 문화예술 활동유형에 따라 가장 공공지원이 필요한 매개체를 교차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35.7%)과 아카이브(40.0%)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창작발표활동과 기획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창작발표 활동 48.8%, 기획활동 62.5%).
- 평론/이론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40.0%)과 비평매체(40.0%)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공공지원이 필요한 매개체

〈표 2-22〉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공공지원이 필요한 매개체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함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	단체에 속해서 활동함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	24.0%	21.4%	31.7%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행사	36.0%	39.3%	55.6%
아카이브(창작활동, 정보 등의 온오프라인 DB구축)	20.0%	14.6%	6.3%
비평매체(다원예술 작업을 발굴하고 소개하며, 담론을 형성하는 온오프 매체)	20.0%	25.0%	6.3%
전체	100%	100%	100%

-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은 비교적 아카이브 및 비평매체에 대한 공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반면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행사 및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에 대한 공공지원을 필요로 함.
- 이는 단체가 일정하게 아카이브와 비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아카이브 및 비평 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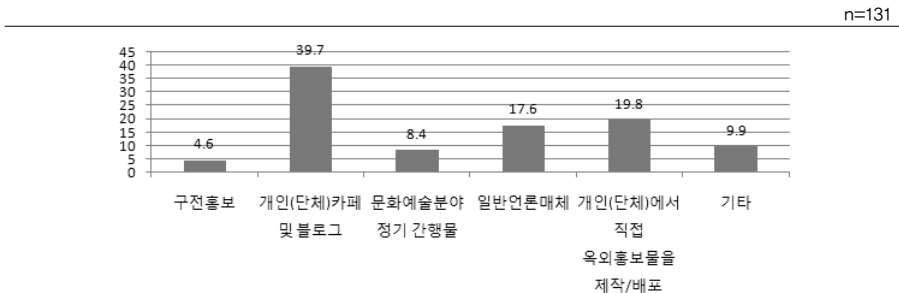
## 3)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매개체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매개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주로

-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비평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27.8%로 높음.
-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체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 반면,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과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51.9%,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집단 48.2%).

## 2. 매체 현황 및 수요

### 1. 주요 홍보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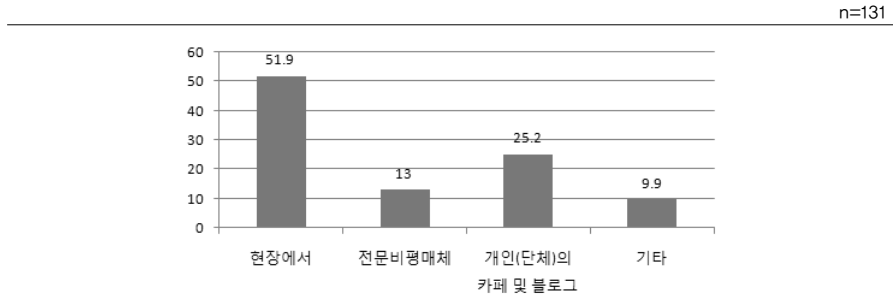
〈그림 2-13〉 다원예술 창작자의 주요 홍보매체

- 다원예술영역의 창작활동을 주로 홍보하는 매체를 분석한 결과 개인(단체)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하여 홍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개인(단체)에서 직접 옥외홍보물을 제작/배포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9.8%, 일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는 응답이 17.6% 순서로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뉴스레터, 웹진 발행, 폰 메시지를 통한 홍보, 창작물을 의뢰한 곳에서 직접 홍보 등이 있음.
- 전반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1)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홍보매체

-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언론매체를 비교적 많이 활용함(20.0%).
- 반면,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17.9%)과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23.8%)의 경우 온라인 매체(카페 및 블로그)를 활용하여 주로 홍보함.

## 2. 주요 피드백 매체



〈그림 2-14〉 다원예술 창작자의 주요 피드백 매체

-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에 대한 비평이나 피드백을 받는 주요한 매체를 설문한 결과, 현장에서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1.9%임.
- 그 다음으로 동호회나 단체의 카페, 개인의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비평과 피드백을 받는 비율이 25.2%, 전문비평매체가 13.0%로 높음.
- 기타 의견으로는 주변사람(지인)을 통해 의견을 들음, 언론매체를 통해 피드백을 받음, 자체 평가회를 통해 내부평가를 함, 관객 비평단을 운영하여 자력으로 진행함, 현장 모니터링과 관객설문조사(소규모)를 진행함, 거의 없음 등이 있음.
- 다원예술영역에서 창작자들이 비평 및 피드백을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 심층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주요 피드백 매체

- 다원예술을 활동하는 방식에 따라 주로 피드백 및 비평을 받는 매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68.0%가 현장에서 피드백 및 비평을 받고 있음.
- 반면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과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비해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피드백 및 비평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sup>15)</sup>

15)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 25.0%,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함 33.3%,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함 16.0%

### 2) 심층분석 - 장르 기반에 따른 주요 피드백 매체

-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서 자신의 활동에 기반이 되는 장르에 따라 주로 피드백 및 비평을 받는 매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현장에서 피드백 및 비평을 받는 비율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음악분야와 연극 분야는 온라인을 통하여 피드백 및 비평을 받는 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대중예술분야와 무용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서 전문 비평매체를 통해 피드백 및 비평을 받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 3) 심층분석 - 거주지역에 따른 주요 피드백 매체

- 거주 지역에 따라 주로 비평이나 피드백을 받는 매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문비평매체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받는 비율이 2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77.8%가 현장에서 비평 및 피드백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온라인을 매체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비율이 27.8%로 비교적 높음.



## 제3장

---

### 매개장 현황

제1절 : 조사 개요

제2절 : 매개장 현황 개괄

제3절 : 공간

제4절 : 축제

제5절 : 매체

제6절 : 운영인력 현황

## 제1절 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및 목적

#### 1. 조사 개요

- 조사 과제 : 다원예술 매개장 현황 조사
- 조사 대상 : 공간, 축제,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 조사 방법 : 현장방문 인터뷰, 설문조사
- 조사 기간 : 2008. 9. 22~11. 10
- 연구 기간 : 2008. 9. 1~11. 30

#### 2. 조사 목적

- ‘매개장’은 창작, 교류, 향수 등 각 영역의 활동을 매개하는 유무형의 활동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 조사는 다원예술 각 영역의 활동 흐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사는 매개의 역할을 중심으로 매개장에 대한 기본 현황 조사, 매개장의 전개, ‘매개’의 역할을 다층화 할 수 있는 매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 매개장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사는 방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통계조사 방법의 창작현황 조사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원예술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2. 조사방법 및 대상

### 1. 조사방법

- 운영자 현황, 공간 현황, 사업 현황,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다원예술 수요 등 기본현황조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 서면 조사로 진행
- 현장 방문조사에서는 공간 답사를 통한 공간 조사, 매개장 전개과정 및 운영방향, 매개활동, 지원수요에 대한 운영자 심화 인터뷰 진행

구분	기본현황조사	심층조사
조사방법	문헌조사 인터넷 조사 서면조사	운영현장 방문조사 운영자 인터뷰

### 2. 조사 대상<sup>16)</sup>

- 창작스튜디오, 발표 등을 넘어 ▲창작활동을 발굴 지원하는 장으로 장르복합적인 새로운 시도, ▲특정 장르에 기반하더라도 공공성 실험성 등 기존 장르활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활동, ▲독립예술, 비주류예술에 주목하는<sup>17)</sup> 공간, 축제, 매체를 조사 대상으로 함.
- 단발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보다는 지속적인 운영 의지와 지역 혹은 예술 영역에서 네트워크의 확장 의지를 가진 장을 조사대상으로 함.
- 전국적 현황 파악을 위해 광역권 별 하나 이상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함.

16)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1. 매개장의 조작적 정의 참조

17) 제2장 창작현황연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가공모사업 신청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매개장 조사에서는 기존 지원제도에 노출되기 어려운 독립예술, 비주류예술 등에 좀더 주목함.

〈조사대상 리스트〉

구분	매개장	보조 조사
서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 일상예술창작센터 한국실험예술제 서울변방연극제 문래예술공단(랩39 / 온앤옴무용단 / 물레아트페스티벌) 가슴네트워크(웹진 가슴)	*쌈지스페이스 *문화허브 상상마당(KT&G) *LIG 아트홀(LIG 손해보험) *CJ 영페스티벌 *새라새극장(고양문화재단)
인천/경기	안양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인천 스페이스 빔	
강원	후용공연예술센터(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대전/충청	하이브 캠프(청주)	
부산/경상	대안공간 반디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재미난복수, 대안문화공간 아 지트) 문화잡지 보일라 시지프스의 하늘 (소극장 실천무대, 극단 새벽)	연극자리 소풍(대구) 대안문화공간 책마을 페다고지, 소극장 품(울산 - 극단 새벽) 아트팩토리 숨 문화골목 오픈스페이스 배
광주/전라	매개공간 미나리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공공작업소 심심
제주	거리예술제 - 머리예꽃을 / 간드락소극장(테러J)	

- 민간운영을 조사대상으로 함. 다원예술매개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제외함.
- 최근 기업의 독립예술, 비주류 예술, 다매체 다장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영목적 등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보조조사 대상으로 함.
- 이외 보조 조사 대상 6곳은 매개장으로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활동에서 다원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곳(공공작업소 심심, 문화골목), 극단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작업의 기반을 만드는 곳(연극자리 소풍), 새롭게 조성되어 지역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곳(대안문화공간 책마을 페다고지) 등이 포함됨.
- 한편, 공간 운영에 변동사항들이 계획되어 있어 유보한 곳(아트팩토리 숨, 오픈스페이스 배)도 주요 조사분석에서 제외함.
-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2008년 신생 매개장은 주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시작 시점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은 곳은 포함시킴(매개공간 미나리).

### 3. 조사 내용

#### 1. 조사설계

구분	항목	주요 내용
기본 항목	정체성	미션, 방향
	운영주체	법적 성격, 인력 구성, 재정 등
	공간운영	시설현황, 운영방식
	프로그램	창작 지원 아티스트-아티스트 매개 아티스트-지역 매개 등
	참여자과 이용자	주요 참여 예술가 및 이용자
	네트워킹, 커뮤니티	장르, 지역, DB 구축 등
심화 항목	운영방식	개방성, 공유성, 소통
	비전	지속가능성
	지역환경	지역의 문화예술환경, 공공지원 현황 등
기타	다원예술	개념과 인식, 지원 수요, 네트워크

## 2. 서면조사 항목표

구분	내용	비고
1) 운영자 현황	활동유형 법적성격 / 활동성격 운영체계 / 운영인력 활동분야 다원활동성격 미션	
2) 공간 현황	개관년도 운영자 공간형태 및 규모 소유형태 운영방식 운영현황 예술활동 지원	
3) 사업 현황	사업유형 사업 운영현황	인력 운영 공공지원 현황
4)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매개 기능 인큐베이팅, 교류지원 아카이브 매체 운영	
5) 다원예술	다원예술의 인식 다원활동에 필요한 도움 다원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크	
6) 기타	지역적 환경	

## 4. 연구 절차

구분	일정	진행 내용
조사설계	9.1~9.12	조사설계 및 기획회의
기본현황조사	9.13~9.30	조사 목표 구체화 조사 대상 선정(문헌조사 및 인터넷 등) 주요 조사항목 구성
심층조사	10.1~11.5	현장 방문조사 진행 추가 서면조사 진행 (이메일링)
자료 분석	11.6~11.20	매개장 현황 분석
조사분석 완료	11.21~11.30	매개장 조사분석 완료

## 제2절 매개장 현황 개괄

### 1. 매개장의 대상과 범주

#### 1. 매개장의 조작적 정의

- 다원예술 정의, 범주, 대상은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실험성, 공공성, 독립성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규정에 따름.<sup>18)</sup>
- 매개장은 창작, 발표, 향수 등 창작활동의 각 영역의 흐름을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장을 의미함.
  - 장르 복합적인 새로운 시도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장
  - 장르적 특성이 뚜렷하더라도 공공성과 실험성을 기반으로 타 장르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
  - 여타 예술영역 및 지역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
  - 단발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장
  - 독립예술, 비주류예술 활동이 활발한 장

#### 2. 매개장 유형

매개장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공간, 축제, 매체로 유형화함.

##### 가. 공간

- 창작/발표 및 창작과정을 지원하는 공간
- 창작활동에서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지역 등을 매개하는 공간
- 일상적인 거점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진 공간

##### 나. 축제

-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관객의 매개를 통해 창작활동을 촉진함.
- 독립예술, 실험예술, 비주류 예술의 경향을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드러냄.
- 공간이 지속성과 일상적 거점의 역할이 중시된다면 축제는 집중적이고 집약적임.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보고서』, p.19.



#### 다. 매체

- 신진예술, 독립예술, 비주류 예술을 발굴, 소개, 비평하는 장
- 2차적으로 기록의 역할을 함.
- 공간과 같은 지속성을 가짐.

### 3. 지역

- 지역적 분포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활발함.
-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중요한 활동의 한 축을 차지함.
- 그러나 창작자의 창작활동 매개에 집중하는 장을 본 연구의 매개장으로 봄.

### 4. 운영

- ‘독립예술 창작 활성화’ 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장
- 창작/발표의 장이기도 하고, 창작자를 위한 프로모션의 장
- 창작자, 기획자, 공연예술 기반, 시각예술 기반 등 운영자 및 운영단체의 활동 성격은 다양하게 엮어둠.

## 2. 유형별/지역별 현황

### 1. 유형별 현황

〈표 3-1〉 매개장 유형별 현황

구분	매개장	비고
공간	문래예술공간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스페이스 빔 후용공연예술센터 하이프 캠프 매개공간 미나리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문화심터 시지프스의하늘(극단 새벽) 대안공간 반디 대안문화공간 아지트(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13
축제	한국실험예술제(한국실험예술정신) 서울변방연극제(서울공연예술가모임) 예술시장 프리마켓(일상예술창작센터) 서울프린지페스티벌(서울프린지네트워크)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제주 거리예술제 - 머리에꽃을(테러 J)	6
매체	가슴네트워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서울프린지네트워크) 문화잡지 보일라	3

\* 괄호( ) 안은 운영주체임.

#### 가. 공간

- 유형별로 보면 공간 13개, 축제 6개, 매체 3개가 있음.
- 대상군에서 공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문래예술공간단은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지역적 범위와 규모를 가지는데, 현재 5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입주해 있고, 경계없는예술, 물레아트페스티벌, 오픈 스튜디오 등의 행사가 열림.

-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일상예술창작센터는 두 단체가 한 공간에 함께 입주해 있음. 공간에 예술단체와 입주작가가 있음. 두 단체는 각자 별도로 스튜디오와 라이브클럽을 운영하기도 함.
- 현재 개별 극단의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거리예술제를 운영하는 테러J가 만든 간드락소극장을 만들었고,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은 실천무대가 모태가 됨.
-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적, 지역적 특성을 살린 축제를 운영하는 곳이 6곳이 있음(문래예술공단: 경계없는예술, 물레아트페스티벌 / 후용공연예술센터: 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광주인디뮤지페스티벌 / 하이브 캠프: 안덕별예술제 / 대안공간 반디: 부산국제미디어페스티벌)

#### 나. 축제

- 축제는 6개의 축제를 주요 대상으로 함.
-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공간을 만든 사례가 4건이 있음(서울프린지네트워크: 스튜디오,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일상예술창작센터: 일상창작공간 /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제주 거리예술제: 간드락 소극장)
- 축제와 공간, 매체를 운영하는 곳도 1곳이 있음(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스튜디오 및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

#### 다. 매체

- 매체는 온라인 매체 2개와 오프라인 매체 1개가 있음.
- 미술연구모임을 통해 결과물을 매체로 만들면서, 공간 운영으로 확장된 곳도 있음(스페이스 빔: 계간 시각)

#### 라. 기타

- 공간, 축제, 매체가 별도로 활동하기보다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확장되는 사례가 많음.
- 공간을 기반으로 축제를 만든 사례가 6건, 축제를 운영하는 조직이 일상 거점 공간으로 축제를 만드는 경우도 4건으로 나타남.
- 축제, 공간, 매체를 모두 운영하는 곳도 1곳이 있음(서울프린지네트워크).

## 2. 지역별 현황

〈표 3-2〉 매개장 지역별/유형별 분포

구분	공간	축제	매체
서울	문래예술공간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한국실험예술제 서울변방연극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예술시장 프리마켓	가슴네트워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인천/경기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스페이스 빔		
강원	후용공연예술센터		
대전/충청	하이프 캠프		
광주/전라	매개공간 미나리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부산/경상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대안공간 반디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문화잡지 보일라
제주		제주 거리예술제	

- 서울과 부산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부산/경상권의 경우, 4곳이 모두 부산에 소재함.
- 서울에 가장 많은 수의 매개장이 있고, 축제(4)와 매체(2)가 집중되어 있음. 공간의 경우, 서울은 예술단체가 운영하는 공간,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소규모 문화공간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 지방의 공간 운영 조사에 집중함.
- 수도권으로 경기, 인천이 들어 있지만, 활동 성격으로 비추어 서울보다 여타 지방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서울-비서울로 비교함.

〈표 3-3〉 서울-지방 유형별 분포 비교

	공간	축제	매체	합계
서울	3	4	2	9
지방	10	2	1	11

### 가. 공간

- 지방은 공간 유형의 매개장 활동 비중이 높음. 특히 부산은 공간 유형의 매개장이 활발함.
- 서울과 지방의 이러한 경향은, 비서울의 경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개활동에서 공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으로 보임. 지방은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짐.

### 나. 축제

- 축제는 서울에서 4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한국실험예술제, 서울변방연극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예술시장 프리마켓).
- 지방은 부산과 제주에서 각각 1개의 사례가 있음(부산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제주 거리예술제).
- 서울의 축제가 실내공연을 포함한 축제라면(예술시장 프리마켓 제외), 지방은 두 가지 사례 모두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출발한 축제
- 축제의 경우, 서울에 비해 지방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소명이 큼.

### 다. 매체

- 매체는 서울과 부산에서 발행되고 있음. 온라인 발행 매체가 서울 2건(웹진 가슴,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오프라인 발행 매체가 부산 1건(문화잡지 보일라)이 있음.
- 매체는 공간이나 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성을 띄지 않지만, 많은 문화예술활동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도 많은 부분이 수도권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음.
-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잡지 보일라 역시, 초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 전시, 연극, 음악, 공간 등을 다루었으나 창작자 활동 지역을 확장해 타 지역 예술활동 소개 비중이 높아지며, 서울의 콘텐츠가 많이 소개됨.
- 매체는 대체로 지역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예술 활동을 발굴, 소개하려는 지향점을 가짐.

〈표 3-4〉 매개장 지역 및 유형 분포 개괄

지역	운영단체	공간	축제	매체
서울	서울프린지네트워크 1998 / 2002	프린지 스튜디오, 서울 프린지네트워크 / 2007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1998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 2007
	서울변방연극제 사무국 (공연예술가모임 1998)		서울변방연극제 1999	
	가슴네트워크 1999			웹진 가슴 1999
	한국실험예술정신 2000		한국실험예술제 2002	
	일상예술창작센터 2002	일상예술창작센터 생활 창작공간 / 2008	예술시장 프리마켓 2002	
	문래예술공단 2007	문래예술공단 2007	(경계없는예술, 몰레아트페스티벌) 2007	
인천/경기	스페이스 빔 (지역미술연구모임 1995)	스페이스 빔 2002		(계간 시각)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 2002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 2002		
강원	극단 노뜰 1993	후용공연예술센터 2004	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 2004	
대전/충청	하이프 캠프 (청주민예 총) / 2005	하이프 캠프 2005	(안덕벌예술제) 2007	
광주/전라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2002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2002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 / 2004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 다 / 2007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 다 / 2007 버들미장원 / 2008	(거리예술제) 2008 12월 예정	
	매개공간 미나리 2008	매개공간 미나리 2008		
부산/경상	극단 새벽 1984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 늘 / 2006 (소극장 실천무대 1985)		
	대안공간 반디 (대안공간 섬 1999)	대안공간 반디 2002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 2004	
	문화잡지 보일라 2002			문화잡지보일라 2002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 수 / 2003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2008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2003	
제주	테러J 1999	(간드락소극장) 2004	거리예술제-머리에꽃 을 / 2002	

\*( ) 안은 조사의 1차 대상은 아니지만,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유관한 자료를 넣음

〈표 3-5〉 운영단체를 중심으로 한 매개장 변화 추이

지역	단체명	주요 연혁
서울	서울프린지네트워크	1998 독립예술제 개최, 독립예술제 집행위원회 설립 2001 축제 근거지를 홍대앞으로 옮김 2002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울프린지네트워크로 전환 2007 프린지 스튜디오 오픈,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간 이전확장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창간
	변방연극제 사무국	1998 서울공연예술가들의 모임 결성 1999 서울변방연극제 개최(대학로) 2005 변방거리극프로젝트로 대안공간 모색
	가슴네트워크	1999 웹진 가슴 창간(2000.3-2002.4 휴간) 2007 가슴네트워크로 전환
	한국실험예술정신	2000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 결성 2002 한국실험예술제 개최
	일상예술창작센터	2002 월드컵을 계기로 예술시장 프리마켓 오픈 2008 일상예술창작센터 공간 이전확장, 생활창작공간〈새끼〉 마련
	문래예술공단	2005 작가 작업실이 입주하기 시작 2007. 6 경계없는예술@문래동, 9, 물레아트페스티벌 개최 2007. 12 문래예술공단 창립 2008 시각예술네트워크 창립
인천/경기	스페이스 빔	1995 ‘지역미술연구모임’ 결성, ‘계간 시각’ 발행 2002 스페이스 빔 개관 (인천 구월동) (2003-2004 운영위원 체제 2005 문화, 예술, 학습 공동체-스페이스 빔 커뮤니티로 발전) 2007 스페이스 빔 이전 (동구 창영동 배다리 인천양조장)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2002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개관 2008. 6 카페 리자드 오픈
강원	극단 노들	1993 극단 노들 창단 2000 후용초등학교 입주 2002 국제 레지던스 시작 2004 후용공연예술센터 개관, 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시작
대전/충청	하이프 캠프	2005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 개관 2006 하이브 캠프로 전환, 창작 레지던스 시작 2007 해외 레지던스 시작, 안덕벌예술제 개최
광주/전라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2002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개관 2004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 기획 2008 전남대 앞에서 대인시장으로 공간 이전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2007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개관 2008 Bubble Community 버들미장원 오픈(작가 커뮤니티 허브) 2008. 12 거리예술제 개최
	매개공간 미나리	2008. 5. 매개공간 미나리 개관 2008. 5 매미시장 오픈
부산/경상	극단 새벽 (시지프스의하늘)	1984 극단 새벽 창단 1985 소극장 두레마당 개관(1985-1991) 1994 소극장 실천무대 개관 2006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개관(실천무대에 문화쉼터 마련)
	대안공간 반디	1999 대안공간 섬 오픈(2001 휴관) 2002 대안공간 반디로 재개관 2004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개최
	문화잡지 보일라	2002 문화잡지 보일라 창간 2006 대안공간 보일라, 전시공간 보일라 오픈(2006 휴관)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2003 거리문화 회복을 위한 독립문화네트워크 기획팀 결성, 재미난 복수 거리축제 개최 2008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오픈(부산대앞)
제주	테러J (거리예술제)	1999 '거리문화를 살립시다' 거리공연 프로젝트팀 출발 2002 거리예술제 "머리에꽃을 거리예술제" 개최 2004 간드락소극장 개관, 자파리연구소 설립 2006 거리예술제의 문화유목민 형식으로 전환



### 3. 시기별 추이

#### 1. 매개장 설립 추이

- 1998년 독립예술제, 1999년 서울변방연극제와 웹진 가슴 등이 설립되는 등 1990년대 후반 다원예술 매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당시 대안문화, 청년문화, 언더그라운드, 비주류, 독립예술 등이 주요한 문화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문화적 배경이 매개장에도 보임.<sup>19)</sup>
- 1998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모태인 독립예술제를 시작으로, 1999년 서울변방연극제, 대안공간 반디의 모태인 대안공간 섬이 문을 열고, 웹진 가슴도 대중음악 전문지로의 출발
- 특히 2002년 4개의 공간과 1개의 축제, 1개의 매체가 발행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sup>20)</sup>
-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고, 다원예술위원회가 출발한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매개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19)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당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고찰과 대안문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활발하게 열렸음( '대안의 길찾기' , 독립예술제 집행위원회, 1999;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정책, 문화연대, 2000).

20) 2002년부터 독립예술 창작활성화와 교류를 위해 창작자 지원과 창작자의 활동 장이 되는 축제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예술지원센터' '대안문화지원센터'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아시아 대안문화센터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02, 2003).

〈표 3-6〉 매개장 연도별 설립추이

구분	1984	1985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공간		(1)							(1)
축제								1	1
매체									1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간	(1)		4		1	1	1	3	3
축제			3	1	1				
매체			1						1

## \*참조

구분	1984	1985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공간		(실천)							(반디)
축제								(독립예술)	변방연극
매체									웹진가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간	(후용)		스톤앤워터 스페이스빔 네버마인드 반디		후용 (간드락)	하이브	시지프스	문래예술 프린지 모리에서다	일상예술 매미 아지트
축제			실험예술 프리마켓 제주거리	복수	(광인)			(물레/경계)	
매체			보일라						인디언밥

\* 괄호 ( ) 안은 매개장 직접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항 표기임

\* 일상예술 : 일상예술창작센터

1985 극단 새벽이 소극장 실천무대 오픈

1998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모태인 독립예술제 개최

1999 대안공간 반디의 모태인 대안공간 섬 오픈

서울변방연극제 개최

웹진 가슴 창간

2000 극단 노들이 폐교된 후용초등학교에 입주

2002 공간으로 스페이스 빔,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대안공간 반디(재개관) 오픈

축제로 한국실험예술제, 예술시장 프리마켓, 제주 거리예술제 개최

매체로 문화잡지 보일라 창간

2003 재미난복수가 거리공연 시작

2004 극단 노들이 후용공연예술센터 개관하고, 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개최함.

제주에서는 테러 J가 간드락소극장 개관

컬처클럽 네버마인드가 주축이 되어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

2005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 오픈

2006 극단 새벽이 문화센터 시지프스의하늘 개관

2007 문래동 철재상가 단지를 중심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경계없는예술축제, 물레아트페스티벌

등의 축제가 열림. 10월에 문래예술공단 입주 작가들이 중심이 된 문래예술공단 설립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간 오픈, 스튜디오 오픈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오픈  
 2008 일상예술창작센터 공간 오픈  
 매개공간 미나리 오픈  
 재미난복수에서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오픈  
 서울프린지네트워크에서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창간

## 2. 운영단체 추이

- 운영단체의 경우 1980년대 1개, 1990년대가 8개, 2000년대가 9개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극단, 미술인모임 등 특정 장르 활동에서 출발한 단체들이 다원예술 매개장으로 역할이 변경 혹은 확장되는 사례가 있음.

〈표 3-7〉 매개장 운영단체 연도별 설립추이

구분	1984	1985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공간		(실천)							(반디)
축제								(독립)	변방연극
매체									웹진가슴
운영단체	극단새벽		극단노들		스페이스빔			독립예술 변방연극	테러J 웹진가슴 반디
	1		1		(1)			2	3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간	(후용)		스톤앤워터 스페이스빔 네버마인드 반디		후용 (간드락)	하이브	시지프스	문래예술 프린지 모리에서다	프리마켓 매미 아지트
축제			실험예술제 프리마켓 제주	복수	(광인)			《물레/경계》	
매체			보일라						인디언밥
운영단체	실험예술		일상예술 스톤앤워터 네버마인드 보일라	복수		하이브		문래 모리에서다	매미
	1		4	1		1		2	1

\* 음영 : 서울

\* 일상예술 : 일상예술창작센터 (예술시장 프리마켓 사무국)

## 4. 공간, 축제, 매체의 발전 양상

〈표 3-8〉 매개장의 발전 유형

유형	매개장 발전 현황	비고
창작자 네트워크 ▷축제	• 서울공연예술가모임 ▷ 서울변방연극제 • 한국실험예술정신 (KoPAS) ▷ 한국실험예술제	
창작자 네트워크 ▷공간	• 지역미술연구모임 ▷ 스페이스 빔 (• 작가 작업실 증가 ▷ 문래예술공단)	
창작집단 ▷ 공간	• 극단 새벽 ▷ 소극장 실천무대 ▷ 시지프스의하늘	
창작집단 ▷공간 ▷축제	• 극단노들 ▷ 후용공연예술센터 ▷ 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공간 ▷축제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 • 하이브 캠프 ▷ 안덕벌 예술제	
축제 ▷공간	• 테러J ▷ 제주 거리예술제 ▷ 간드락소극장 • 재미난복수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예술시장 프리마켓 ▷생활창작공간 새끼	
축제 ▷공간 ▷매체	• 서울프린지페스티벌(구 독립예술제) ▷ 스튜디오,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간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	
공간	• 대안공간 반디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매개공간 미나리	
매체	• 가슴네트워크 • 문화잡지 보일라	보일라 운영 경험유

\* 창작자 네트워크 : 개별 예술가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으로, 작가의 모임을 일컫음.

\* 창작집단 : 극단과 같이 집단이 창작단위를 이루는 경우를 일컫음. 주로 연극단체.

### 1. 유형별 현황

#### 가. 창작자 네트워크에서 축제로

- 서울공연예술가모임은 서울변방연극제를 출범하고, 서울변방연극제 사무국을 구성하여 축제와 공연 기획지원
- 한국실험예술정신은 실험예술가들의 모임에서 출발하여 매년 한국실험예술제를 개최. 실험예술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책자 발간을 통해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음.

#### 나. 창작자 네트워크에서 공간으로

- 스페이스 빔은 지역미술연구모임에서 출발해 공간을 만듦.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오면서 미술작가들의 작업실, 전시,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함. 배다리 산업도로 건설반대와 지역문화통화 등을 통해 지역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음. 계간 시각을 꾸준히 발간하면서 미술과 문화에 대한 기록과 담론들을 담아냄.
- 문래예술공단은 철제공장과 철제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심에 철제상가들이 빠져나간 빈 사무실에 저렴한 작업실을 찾아 입주한 작가들이 하나둘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창작촌. 작가들이 늘어나면서 개인 작업을 넘어서 예술축제, 오픈 스튜디오 등의 창작발표가 활발해졌고, 예술가 네트워크인 문래예술공단을 출범하여 교류 및 공동 현안을 논의함.

#### 다. 창작집단에서 공간, 축제로

- 극단 노뜰은 원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극단으로, 활동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와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 폐교인 후용초등학교에 입주해 극단의 창작발표와 예술가 레지던스,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펼치며, 후용공연예술센터를 개관한 이후 무대예술위크숍 페스티벌을 개최함.
- 극단 새벽은 “연극의 상업화를 거부하고 아마추어 연극의 저변확대와 연극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며 소극장 실천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옴. 대안적 진보적 예술실천을 목적으로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을 소극장 옆에 마련. 연극 위크숍과 소품공연, 아카데미 등 연극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북카페 운영, 영화상영 등을 통해 지역 프로그램 운영

#### 라. 공간에서 축제로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는 초기 몇 개의 라이브클럽과 함께 지역의 인디뮤지션을 발굴하는 장으로 활동하였으나 다른 클럽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활동. 지역 인디뮤지션의 활성화와 서울, 부산 등 타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광주인디뮤지션페스티벌을 개최
- 하이브 캠프는 청주민예총이 발의하여 청주시의 지원을 이끌어낸 공간으로, 초기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로 개관했다가 예술가 레지던스 성격으로 전환하여 하이브

캠프로 운영됨. 청주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레지던스에 이어, 아시아 지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확장. 지역과 예술이 만나는 장으로 종합예술, 공공미술 성격의 안덕벌예술제를 개최함.

#### 마. 축제에서 공간으로

- 테러 J와 재미난복수는 각각 제주 시청앞과 부산의 부산대 거리를 중심으로 건강한 거리문화 복원을 위해 모인 예술가들의 거리공연에서 시작
- 테러 J는 거리공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창작집단으로 발전하면서 제주 거리예술제를 이끌어오고 있음. 개별 창작공연도 올리고 놀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창작과 기획 중심의 자파리연구소를 설립하고, 간드락소극장을 개관하여 근거지를 마련함. 제주 거리예술제는 ‘문화유목민’의 컨셉으로 전환하면서 축제기간 제주 전역을 이동하면서 예술가와 지역이 긴밀하게 만나는 작업 진행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거리예술제로 시작한 축제로, 초기에는 매월 축제를 벌이다 현재는 연 4회로 진행하고 있음. 대안 문화공간 아지트를 마련해, 예술가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간을 중심으로 해외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자 함.
- 홍대앞 놀이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운영주체인 일상예술창작센터의 조직적 운영을 통해 활동의 범위를 확장함.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한 공간에 공동 입주하면서 생활창작공간을 만들어 예술시장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거점 공간으로 작가 모임, 작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작가들이 강사로 결합해 시민 생활창작워크숍을 진행함.

#### 바. 축제에서 공간, 매체로

- 독립예술제를 모태로 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축제 사무국이 상설화되면서 전문 예술단체로 전환하여 활동의 범위를 넓힘.
- 사무실 중심의 업무공간에서 공간을 이전 확장해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간을 창작과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일상적인 창작지원 기반과 교류의 장을 만들. 지역연계 문화예술 작업도 활성화함.
- 독립예술 현장을 발굴하고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을 창간, 독립예술 현장을 소개하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장이 되고자 함.

### 아. 공간의 확장

- 대안공간 섬에서 출발한 대안공간 반디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지원 활동을 펼치며, 국제미디어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작가들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함. 공간은 창작 및 발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카페 운영을 통해 더욱 활발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는 석수시장을 기반으로 예술가와 지역을 활발하게 매개하는 역할을 함. 석수시장의 빈 상가에서 예술가 레지던스를 진행.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 리자드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공간의 접근도를 높임.
- 매개공간 미나리는 대인시장을 예술활동과 지역의 매개 근거지로 설정하면서, 예술가들이 대인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예술매개 거점공간. 대인시장은 광주비엔날레의 프로그램의 한 섹션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의 프로그램 연계로 예술가들이 시장에 입주하여 작업을 진행, 현재 프로젝트 이후에도 대인시장 빈 상가들에 작가들의 작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개공간 미나리는 지역과 예술가를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함.
-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는 발표 중심의 공간이었다면, 1년후 만들어진 버블 커뮤니티 버들미장원은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구성. 공연 예술과 시각예술을 포함한 거리축제를 준비하며 장르간의 만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함.

### 자. 매체의 확장

- 가습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내는 웹진 가슴은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비평매체로, 대중음악 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음악 비평의 장을 확장. 온라인 콘텐츠의 외부 매체 연계와 오프라인 출간 등 다양한 활용과 아카이빙에 중점을 둬. 문화포털로 전환하면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블로그 등 기사 연계방식의 전환을 통해 필진 풀을 확장하고자 함.
- 문화잡지 보일라는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인쇄매체의 월간 무가지로, 작가들의 리뷰와 인터뷰를 담고 있으며, 신진예술가 발굴에 중점을 둬.

## 2. 발전 양상

### 가. 특정 장르 기반에서의 확장

- 공연예술 중심의 공간(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후용공연예술센터), 시각예술 중심의 공간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스페이스 빔, 대안공간 반디 등)들은 특정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타 장르와의 활동으로 넓혀감.

### 나. 기능 역할의 복합화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는 2004년부터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인디뮤직 활성화와 국내 아티스트 교류의 기반을 만들고 있음.
- 하이브 캠프는 미술작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운영 중, 2007년부터 안덕벌예술제를 개최. 예술가들이 중심이 된 공공미술 활동 및 거리공연 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지역에서는 특히 공간의 활동들이 활발한데, 활동 시간이 축적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과 커뮤니티 활동이 연계되어 활동이 자연스럽게 다원화 됨.
- 공간은 일상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어 예술창작교류의 거점으로 또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축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줌.
- 대안공간 반디는 부산 국제미디어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면서 부산지역 작가들의 창작활성화 및 신진작가 발굴의 발판을 만들고 있음. 2007년부터 국제행사로 위상이 바뀌면서 작가 홍보용 도록을 제작 배포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다. 다원적 지향성을 가지고 출발

- 최근 개관한 공간들은 특정 장르나 특정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들을 매개하는 공간 지향점을 설정(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매개공간 미나리 등)



## 5. 장르 유형

### 1. 주요 장르

#### 가. 지역적 특성

- 서울은 출발에서부터 다원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반면, 지방은 오랜 기간 활동이 축적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임.

#### 나. 유형적 특성

- 주요 기반 장르 분포에서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이 비슷한 비율을 보임.
- 공연예술 분야에서 대부분은 연극, 무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컬처클럽 네버마인드와 가슴네트워크는 음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
- 공간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비중이 높음.
- 축제와 매체는 특정 장르 기반이 아닌 복합적 양상을 보임. 축제 중에서도 거리예술이 활발한 곳이 복합적인 경향이 강함. 실내의 경우도 실험성과 새로운 시도를 주요 화두로 둬.

〈표 3-9〉 매개장 장르 기반

구분	공간	축제	매체	합계
시각예술	일상예술창작센터 스페이스 빔 대안공간 반디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매개공간 미나리	예술시장 프리마켓		7
공연예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문화심터 시지프스의아는 후용공연예술센터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서울변방연극제 한국실험예술제	가슴네트워크	7
복합	문래예술공단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제주 거리예술제	문화잡지 보일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발	6

\*서울 지역은 음영으로 표시함.

## 2. 세부 장르

〈표 3-10〉 매개장 세부 활동 장르

유형	매개장명	세부 장르									
		미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영상	사진	문학	영화	기타
공간	문래예술공단	●	●	●			○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	●	○					
	일상예술창작센터	●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	○								
	스페이스 빔	●									
	후용공연예술센터		●	○		○					
	하이프 캠프	●					○	○	○		
	매개공간 미나리	●			○		○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			●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대안공간 반디	●					○				
	시지프스의 하늘		●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	●	○	○	○		○	대중예술
축제	서울변방연극제		●	●							
	한국실험예술제	○	●		○						
	예술시장 프리마켓	●			○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	●	●	○	○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	○	○	●	○	○	○		○	
	제주 거리예술제	●	●		○		○			○	
매체	가슴네트워크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	●	●	●					○	만화
	문화잡지 보일라	●	○	○	●	○		○	○	○	대중예술

\*○ 활동 분야, ● 주요 활동 분야

\*가슴네트워크는 음악을 '대중예술'로 표기했지만,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나 다른 곳에서 음악과 대중예술을 분리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음악으로 항목 수정함.

-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표시했을 때, 많은 매개장에서 영화 상영을 함. 그러나 창작활동에 바탕을 둔 영화 연계 사업은 별로 없음.
- 미술, 연극, 무용, 음악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악, 영상, 사진, 문학, 만화 등은 비중이 낮지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 6. 다원예술 활동 성격

〈표 3-11〉 매개장 다원예술 활동 성격

유형	매개장명	다원예술 성격							
		새로운 예술	탈장르 예술	복합 장르	독립 예술	비주류 예술	종다양 성 추구	공공 가치	공동체 소통
공간	문래예술공단				○			○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	○	○	○	○	○	○
	일상예술창작센터					○	○	○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			○	○
	스페이스 빔							○	○
	후용공연예술센터	○	○	○	○		○	○	○
	하이프 캠프	○		○			○	○	○
	매개공간 미나리			○	○			○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	○	○	○	○	○	○
	대안공간 반디				○		○	○	○
	시지프스의 하늘				○			○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	○	○	○	○	○	○
축제	서울변방연극제	○		○			○	○	
	한국실험예술제	○	○	○	○	○	○	○	○
	예술시장 프리마켓					○	○	○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	○	○	○	○	○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	○	○	○	○	○	○	○
	제주 거리예술제	○	○	○	○	○	○	○	○
매체	가슴네트워크					○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	○	○	○	○	○	○	○	○
	문화잡지 보일라	○	○	○	○	○	○	○	○

\* 매개장의 다원예술 성격은 현재의 다원예술 성격 분류를 기준으로 함.

\* 매개장 활동성격은 매개장 운영자가 직접 표기하였으며, 일부 직접회신을 얻지 못한 경우는 조사자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함.

- 현장에서는 다원예술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향이 많음.
- 위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 함.

- 예술활동의 가치에서 볼 때 종다양성, 공공가치 추구, 공동체 소통을 지향점으로 많이 둔.
- 용어로는 낯설어했지만, 예술 현장은 이미 다원적인 경향성들을 많이 보임.
- 가치지향적이며,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열려 있음.

## 제3절 공간

## 1. 개괄

## 1. 일반 현황

〈표 3-12〉 공간 일반 현황

지역	매개장	개관년도	운영주체	비고
서울	문래예술공단	2007	문래동 작가공동체	3
	프린지스튜디오, F+놀이터	2007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생활창작공간 새끼	2008	일상예술창작센터	
인천/경기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2002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2
	스페이스 빔	2002	스페이스 빔	
강원	후용공연예술센터	2004	극단 노들	1
대전/충청	하이프 캠프	2005	청주 민예총	1
광주/전라	매개공간 미나리	2008	매개공간 미나리	3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2002	광주독립음악발전연대 네버마인드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2007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부산/경상	대안공간 반디	1999	대안공간 반디	3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2006	극단 새벽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2008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 공간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13곳
- 문래예술공단은 지역적으로 가장 큰 규모와 범위를 가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창작촌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 소유 형태

- 공간 가운데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곳은 2곳으로, 대부분 사설시설을 유상임대해서 사용
- 공공시설을 유상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으로, 후용공연예술센터는 원주시(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하이브 캠프는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청주시가 운영하는 문화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음.
- 하이브 캠프는 지자체에서 공간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입주

- 건물의 특성상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운영방침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사설시설 유상임대는 대부분 월세 형태로 운영. 공간 접근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외곽보다는 시내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가 높음.
  - 관의 지역개발 방침에 따라 공간의 지속적인 운영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음 (대인시장, 석수시장, 문래예술공간 지역 등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스페이스 빔은 산업도로의 관통을 막기 위한 배다리 지키기 운동을 진행중).

〈표 3-13〉 공간 소유형태

구분	매개장	현황	비고
공공시설 유상임대	후용공연예술센터 하이프 캠프	폐교 임대(원주시 교육청) 청주시 지원(청주문화산업단지 내)	2
사설시설 유상임대	문래예술공간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위터 스페이스 빔 매개공간 미나리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대안공간 반디 문화섬터 시지프스의 하늘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철제공장 빈 사무실 개별 임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일상예술창작센터 공동 입주 석수시장 내 입주 폐 양조장 임대 대인시장 인근 창고건물 임대 대인시장 인근 빌딩에 입주 일반 주택건물 임대 목욕탕 건물 임대 소극장 실천무대 공간 유치원 건물 임대	11

### 3. 입지 특징

#### 가. 유희공간 활용

- 사용이 저조한 공간에 문화예술 인적자원과 인프라가 채워짐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와 밀접한 문화기반시설의 역할을 함.
- 스페이스 빔은 폐관한 양조공장을 개조하여 예술공간으로 변화시켰고, 대안공간 반디는 폐관한 목욕탕 건물을 개조함.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는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였고,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위터는 쇠락해가는 석수시장의 빈 상가를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함.
- 문래예술공간은 도심에 섬처럼 있는 철제상가 지역의 빈 사무실을 작가들이 임대해

창작공간으로 사용. 현재 50여개 작업실에 약 120여명이 입주해 있음.

#### 나. 자생적 작가 창작촌 형성

- 문래예술공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임대료의 작업실을 찾아 하나둘 입주하여 현재 자생적인 창작촌을 형성함.
- 문래예술공단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창작교류와 공동사업 대응 창구를 마련중.

(2008년 도시사회연구소에서 〈문래예술공단 연구〉 진행함)

- 미술작가 작업실, 연극집단 연습실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시공간, 공연장 등이 있고, 국제 레지던스를 진행하기도 함.
- 문래예술공단은 약 50여 개의 작가 작업실들이 있지만, 전시장, 소극장 등 창작/발표의 공간이 거의 없고, 작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 공간 창출을 위한 작업을 준비중. 일부 입주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아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다. 공간 접근성이 높음

- 도심 또는 접근성이 높다는 경향성이 있음. 창작만이 아니라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 활동과 지역의 소통과 매개 활동을 벌이기 때문임.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큼.

## 2. 공간 구성

### 1. 보유 공간 유형

- 창작/발표, 레지던스, 매개 공간을 모두 갖춘 곳은 4곳(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후용공연예술센터,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하이브 캠프는 레지던스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간 중에는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7곳이 있음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후용공연예술센터, 매개공간 미나리, 모리에서다, 대안공간 반디,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문래예술공단).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석수시장)와 매개공간 미나리(대인시장)는 근거리의 시장과 연계하여 작가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음. 시장 내 빈 상가는 작가들의 작업실로 사용되며, 대인시장 입주작가는 프로젝트성이 아닌 장기 거주를 위한 입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일상예술창작센터는 단독건물에 공동으로 입주해 있으며, 공간에서 독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공동으로 사용.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움직임 중심으로 한 스튜디오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품공연, 워크숍 등 자체 기획 프로그램 진행.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입주공간을 중심으로 작가 모임, 워크숍 등 운영. 운영주체가 같은 라이브클럽 빵을 연계해 음악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독립영화상영 등도 진행함.
- 커뮤니티 공간 중에는 카페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음.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에 문을 연 카페 리자드는 지역민이 갤러리로 유입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며, 매개공간 미나리는 살롱의 형태로 운영하여 카페 겸 작가들의 창작 아지트로 활용됨.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은 북카페의 형태로 일상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카페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임 (하이브 캠프는 '톡톡' 을 운영한 바 있고, 대안공간 반디도 지하에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표 3-14〉 보유 공간 유형

매개장명	창작공간	발표공간	레지던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	사무공간	비고
문래예술공단	○	○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	○	○	○	
일상예술창작센터	○	○	○	○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	○	○	○	○	시장내 빈 상가
스페이스 빔	○	○		○	○	
후용공연예술센터	○	○	○	○	○	
하이프 캠프	○	○			○	
매개공간 미나리		○	○	○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		○	○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	○	○	○	
대안공간 반디	○	○		○	○	야외전시
시지프스의 하늘	○	○		○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	○	○	○	

## 2. 보유 공간 상세 현황

〈표 3-15〉 보유 공간 상세

명칭	전체규모	창작공간	발표공간	레지던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	사무공간
문래예술공단	철제공장 윗층에 입주. 개별 작업실마다 다양(5평~30평)	작업실 약 50곳	전시장 1(랩 39) / 공연장 1(춤공장)	운영		
서울프린지네트웍	스튜디오 운영 2층 단독건물 프린지, 프리마켓 공동 입주	스튜디오 1 (30평) 워크숍룸 1	스튜디오 나 서울프린지 공간 활용	운영	2 (공동)	2층
일상예술창작센터	마켓 공동 입주	워크숍룸 1 (5평)	창작공간 활용	운영	2 (공동)	1층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1층-카페(15평)/ 2층-사무, 전시장 (30평) /3층-옥상	석수시장내 빈상가	전시장 1	운영	카페 리자드 (1층)	유
스페이스 빔	2층 단독건물	스튜디오 1	스튜디오 1		1실	1실
후용공연예술센터	1층 단독건물 (후용초등학교)	스튜디오 1	소극장 1	운영	휴식공간 1	2실
하이프 캠프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2층 입주. 약 150평	스튜디오 7실 (4~20평)	다목적공간 1 (40평)	운영		1실 (13평)
매개공간 미나리	주차장내 창고 건물 한 동. 약 60평		전시/발표 진행	운영	카페 미나리 운영	1실 (2평)
컬처클럽 네버바인드	빌딩 지하 1층. 약 70평		공연장 (50석)		바 (15석) 전시공간	2실 (각 2평)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단층건물 약 10평	작업/전시장 5 (버들미장원)	전시장 1 (모리에서다)	운영 (버들미장원. 30평)	각각 세미나실 1, 커뮤니티실 1	사무실 1 사무실 1
대안공간 반디	3층 단독 건물. 1층 120평, 2층 50평, 지하 30평, 옥외 50평	작업실 2	전시장 2	운영	교육공간 1	사무실 1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	극장포함 90평 (빌딩 6층에 입주)	문화쉼터 1 20평	소극장 1 (실천무대)		창작공간과 동일	사무실 2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2층 단독주택 1층 70평, 2층 70평	작업실 3 스튜디오 1 합주실 1	발표공간 1	운영	교육공간 1 매개공간 1	사무실 2

- 문래예술공단 : 철제공장 밀집지역 빈 사무실에 작가들의 작업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예술가 커뮤니티 결성.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연극, 무용 등 움직임 작업 위주의 스튜디오를 별도로 운영하며 창작과 발표의 공간으로 사용. 기획자, 연출가 등 작가 입주.
- 일상예술창작센터 : 대표가 라이브클럽 뽕도 운영하고 있어, 뽕에서 전시나 행사를 연계 진행하기도 함. 프리마켓 작가 입주.
-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 : 석수시장 내 빈 상가를 연계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 스페이스 빔 : 옛 양조장 건물을 임대해 공간의 원형을 살리며 활용
- 후용공연예술센터 : 폐교된 후용초등학교를 임대해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극단에서 공간에서 살며 공간을 관리함.
- 하이브 캠프 : 청주시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음. 예술가 레지던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창작활동을 위한 영상, 녹음실, 암실, 전자가마 등을 구비함.
- 매개공간 미나리 : 주차장내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인근 대인시장과 연계해 작가 작업실 구축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 대인시장 인근 빌딩에 입주
-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상가 거리 단층건물 모리에서다와 더불어 작가 레지던스와 커뮤니티 공간인 버들미장원을 운영
- 대안공간 반디 : 목욕탕 건물의 원형을 살려 개조, 야외 전시도 진행
-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 : 극장 옆에 북카페 형태로 교육,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유치원 건물을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숙박 공간 가짐.

### 3. 주요 사업

공간의 사업 유형은 창작/발표, 지역 연계, 아티스트 레지던스, 예술가 교육/지원, 축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3-16〉 공간 사업 유형

매개장명	사업 유형				
	창작/발표	지역 연계	예술가 레지던스	예술가 교육/지원	연구/출판
문래예술공단	●		○	○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	○	●	○
일상예술창작센터	●	●	○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	○	●		
스페이스 빔	●	○			●
후용공연예술센터	●	○	●		
하이프 캠프	○	○	●		
매개공간 미나리	●	○	○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	○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	●		
대안공간 반디	●		○	○	
문화센터 시지프스의하늘	○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	○	○	

\* 주요 사업은 ●으로 표시함.

#### 1. 창작/발표/축제

- 창작과 발표의 복합적 기능
- 창작/발표는 신진작가, 지역 작가 발굴에 역점을 둠.
- 개별 작가, 개별 작품의 창작/발표 외에도 공간을 기반으로 한 ‘축제’ 등의 사업으로 기능이 확장되기도 함. 무대예술워크숍 페스티벌이나 부산 국제미디어페스티벌은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작가들의 창작교류 장을 만든 사례. 재미난복수는 지속적인 거리공연으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창작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어냄.

〈표 3-17〉 공간 창작/발표/축제 현황

매개장명	창작/발표	축제/교류
문래예술공간	1) 작가 작업실 창작활동 2) 미술/전시 3) 공연	1) 경계없는 예술@문래 (2007) 2) 물레아트페스티벌 (2007) 3) 프레 오픈 스튜디오(2008) 등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1) 창작 워크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 소품 공연, 발표 3) 포럼 및 세미나	1) F+ 프로젝트 - 월 1회 예술가-기획자 매칭 소품 공연 2)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공간 연계
일상예술 창작센터	1) 작가 워크숍 2) 시민 만들기 워크숍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	1) 신진작가 프로그램 2) 공모전 3) 지역작가 초대전	1) 석수아트프로젝트(오픈 스튜디오, 오픈 페스티벌)
스페이스 빔	1) 전시기획 CITY-RAY 2) 작가활동 지원 프로그램(5단위) 3) 신진작가 초대전(1,2,3부) 4) 기획초대 & 전시공간 지원	
후용공연 예술센터	1) 공연창작/발표 - 연 2~3개 작품 발표 - 외부 연출 초빙 - 국내 및 해외 공연 진행 2) 레지던스 작가들의 쇼케이스 공연	1) 무대예술 워크숍 페스티벌 - 2004년 시작 - 매년 8월 약 10일간에 걸쳐 진행 - 20여명의 국내외 예술인 참여
하이프 캠프	1) 레지던스 작가 창작활동 2) 오픈 스튜디오 3) 전시회	1) 안덕벌예술제 - 2007년 시작 - 예술대학과 연계 지역 공공미술, 공연 등
매개공간 미나리	1) ~만 말 토크쇼 : 영상/녹취후 아카이빙 2) 전시 프로그램 3) 외부공간교류 프로그램 4) 외부기획 프로그램 교류 5) 공연	1) 매미시장 - 매월 열리는 예술시장 - 아트상품 전시/판매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와 연계한 음악공연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1) 매주 토요일 인디밴드 기획공연 - 광주 인디밴드, 스쿨밴드 참여	1)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 - 2004년 시작, 2008년 5회째 진행 - 국내 20~25팀 참여 (광주, 서울 등)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1) 전시 프로그램 2) 10만원 프로젝트 - 작가 7명 지원	1) 일상에서 예술하기 - 조우 - 2008. 12월 개최
대안공간 반디	1) 전시 및 지원 - 유망작가 지원 프로그램 (5-6회) - 신진작가, 전시기획자 발굴 프로그램 (1-2회) - 다시보는 작가 프로그램 (1-2회)	1)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 2004년 시작, 연 1회 개최 - 2007년부터 부산시 지원으로 국제행사로 진행

	2) 기획전 및 특별전(2-3회)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	1) 극단 정기공연 - 연간 3-4편 2) 공연, 전시 프로그램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2) 네트워크 사업과 공간운영 3) 갤러리 7436 전시 (비정기)	1)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 2003년 6월 시작, 매월 진행

## 2. 예술가 레지던스

-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후용공연예술센터, 매개공간 미나리,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문래예술공단 등.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후용공연예술센터(2002), 대안공간 아지트(2008), 문래예술공단(2008)은 국제 레지던스를 운영.
-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와의 적극적인 교류 작업은 예술창작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이브 캠프,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중에는 후용공연예술센터와 대안공간 아지트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 국내 레지던스는 대부분 작업실만을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국제 레지던스는 항공료, 체재비, 프로젝트 진행비 등 예산항목에서 체재비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주요한 요소가 됨(하이브 캠프는 건물 외부에 별도 숙소 제공).
- 하이브 캠프는 국제교류에서도 특히 아시아 교류가 중심. 2007년 이래 동아시아 5개국 6~8명의 작가들이 3개월간 거주하면서 작업. 태국과의 초청교류전을 진행하기도 함.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는 직접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외부 기획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들과의 창작교류와 숙박을 제공
- 문래예술공단은 물레아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해외 예술가 초청교류, 랩39의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작가 레지던스를 진행
- 후용공연예술센터는 국내 및 해외에서 약 20여명의 작가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 세계 전역에서 공개모집의 형태로 참여신청 받음.
-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작가와 기획자 대상 소규모 레지던스 진행

〈표 3-18〉 공간 레지던스 운영현황

매개장명	국내 레지던스	국제 레지던스
문래예술공단		1) 국제 레지던스 운영 - 문래예술공단에 입주한 단체들 중 해외와 교류가 활발한 팀 중심의 교류작업 (오픈 스튜디오, 몰레아트페스티벌 등)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 기획자, 연출가 입주 - 프로그램 기획 등 참여	
일상예술 창작센터	- 프리마켓 작가 입주 - 프로그램 개발 등 참여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1) 전국 범위에서 참여	1) 석수시장 레지던스 - 북미, 유럽권 작가 참여 - 석수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작가 작업실 제공 - 작가교류 기회 제공
후용공연 예술센터	* 국제 레지던스에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동시 공모로 진행	1) 국제 레지던스 - 2002년 해외 예술가 입주 작업 시작 - 2004년 후용공연예술센터 개관후 '아티스트-인-레지던시' 공모모집 진행 - 연간 15명 내외, 장/단기 입주 - 무대미술, 무용, 사운드디자인, 연출, 미술, 문학, 음악, 마임 등 다양한 영역참여 - 미국, 이스라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
하이프 캠프	1) 국내 레지던스 - 2006년 시작 - 충북도내 예술가 대상 공개모집 - 연 8~10명 참여, 2년간 작업실 지원 - 창작발표, 워크숍 등 진행	1) 국제 레지던스 - 2007년 시작 - 아시아 작가 대상 공개모집 - 연 6~10명 참여, 3개월 체류 지원 - 작업유형은 창작발표, 한국문화체험, 공동창작 등
매개공간 미나리	1) 대인시장 레지던스 프로젝트 - 2008년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연계로 시작 - 대인시장 빈 상가에 작가 입주(단기 프로젝트 참여가 아닌, 작가의 일상 작업실 입주 지원)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1) 작가 커뮤니티 '버들미장원' 레지던스 운영 - 2008년 주택 개조해서 공간 만들 - 5개의 작업실 운영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1) 국제 레지던스 - 2008년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외부 사업과 연계하면서 해외 작가들에게 체류공간 제공

### 3. 지역 연계

-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시민대상 문화예술활동 등이 활발함.
- 각 공간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9〉 공간 지역연계 사업

매개장명	지역연계
문래예술공단	1) 철재상가 거리 벽화 그리기 2) 공연/전시 작품의 소품으로 철재 활용이 늘어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1) 지역 아동을 위한 연극놀이 워크숍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일상예술창작센터	1) 시민 만들기 워크숍 프로그램 상설화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1) 지역문제에 동참이슈 생성 - 안양천 프로젝트 - 석수 아트 프로젝트 2) 문화예술교육 - 스톤앤워터 교육예술센터 운영 : 지역내 문화공간 교육예술전문가, 학교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2006 학교-지역연계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2006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 후원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양성 사업에 선정 3) 카페 리자드 운영 -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전시장으로 올 수 있는 유입구의 역할 -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의 장, 자료 아카이빙
스페이스 빔	1) 배다리 주말극장 2) 동네미술공작소 3) Public Studio_III 4) 동네미술공장 '땀뽕' 5) 지역통화 운영 : 배다리 생활문화공동체 '띠앗' 6)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외 문화예술 관련 제도 및 정책과 공공적인 문화담론 형성
후용공연예술센터	1)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 예술이랑 놀기
하이프 캠프	1) 문화예술체험교육 2) 안덕벌예술제(공공미술제, 공연예술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 2007년 시작 - 하이브캠프 인근 지역에서 개최
매개공간 미나리	1) 지역 예술인 교류 - 아트마켓 매미시장 - 매미카페 : 살롱 문화만들기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1) 독립영화상영회(비정기) 2) 미술전시(비정기)



	3) 거리 음악공연 진행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1) 반상회 : 생활의 재발견 공동체 소통
대안공간 반디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1) 연극 아카데미 / 발표(방학 연2회) 2) 문화포럼(격월) 3) 인권영화상영(매월) 4) 토론회, 세미나(비정기)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1) 지역 문화행사 지원

#### 4. 예술가 지원/교육

- 공간의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 창작활동 지원이어서, 발표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자발적인 자기 PR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 매개공간 미나리는 ‘자발적 PR전 - ShowRoom’ 을 통해 2주간 작가들이 자기 작업을 가져와 홍보하는 방식을 전시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구성
- 대안공간 반디는 매년 공간에서 전시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홍보 도록을 제작해 해외에 발송.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들이 직접 해외 갤러리와 접촉하고 진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얻고 있음,
- 전시에 국한하지 않고 미술비평매체 발간을 통해 미술비평을 확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의 젊은 기획자 양성사업 추진(대안공간 반디, 스페이스 빔 등)

〈표 3-20〉 공간 예술가 교육/지원 프로그램

매개장명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문래예술공단	1) 작가 커뮤니티 모임을 통한 의제 발굴 (문래예술공단, 시각예술네트워크 등)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1) 예술가 창작 워크숍 운영 2) F+ 프로젝트 등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3) 포럼, 세미나 등 토론회 개최 4) 창작, 발표 공간 지원
일상예술창작 센터	1) 신입작가 워크숍	1) 작가 워크숍 2) 창작 공간 지원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1) 레지던스 작가 작업비 지원
스페이스 빔	1) 학술팀을 운영하여 스터디 및 세미나 진행	1) 작가활동 지원 - 연 3~5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개인전시 지원, 전시기획 공모 2) 지원 방향 - 특정 장소나 맥락에 대한 예술적 개입을 시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 - 인천과 연관된 활동에 우선권 부여 - 공공성 짙은 전시나 공연, 토론회, 소모임 등에 공간 무료 대관
후용공연 예술센터	1)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2) 워크숍	1) 레지던스 작가 작업비 지원
매개공간 미나리	1) 예술인 교육프로그램 : 새신 프로젝트_워크숍 2) 자발적 PR展 'Showroom' : 작가 대표작 2주간 홍보 3)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구축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1) 네버마인드 컴필레이션 음반 발매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1) 십만원 프로젝트
대안공간 반디	1) 교육 프로그램(2회) - 포트폴리오 작성법 - 자기 PR 등	1) 국내작가 해외 홍보도록 발간사업 - 연 1회, 국내외 50개국 600여곳 2) 작가 작업비 지원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1) 교육 및 강좌(비정기)	1) 스튜디오, 합주실 지원 (대관)

## 5. 연구/출판

- 스페이스 빔은 초기 '지역미술연구모임' 으로 출발하여 자체 스터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계간 시각' 발간
- 문래예술공단에는 입주 단체 중 하나인 도시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역사 및 문화예술 연구물 발간
-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독립예술 관련 학술행사와 관련 자료집 발간, 아시아 독립예술 아카이브 구축사업 자료집 제작

## 4. 아카이브 운영

### 1. 아카이브 유형

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전시 및 자료 공유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는 ‘까페 리자드’를 중심으로 각종 시각예술 자료 및 스톤앤워터의 활동자료를 보관
- 대안공간 반디는 공간 내에 전시도록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도 공간을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여 연극자료 400여편,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보유하고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매개공간 미나리는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및 공연 자료, 지역 문화단체의 자료집을 모아 공간에 비치하고 있으며, 작가들에게 아카이빙 참여 독려
-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공간을 확장하면서 독립예술, 문화예술 자료 및 해외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아카이브룸과 영상실을 조성했으나, 다시 공간을 이전하면서 유보됨.

나. 출판

- 스페이스 빔은 〈계간 시각〉을 발행. 스페이스 빔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와 전시 자료를 보관. 시각예술의 흐름과 문화예술계의 담론을 살필 수 있는 각종 연구자료와 잡지, 서적, 기록물을 정리, 보관. 온라인을 통해 〈계간 시각〉 콘텐츠를 공유하고, 공공미술, 문화정책, 문화교육, 예술론, 지역(인천)미술, 철학 등의 자료 공유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작가들을 소개

다.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

- 하이브 캠프는 레지던스 작가를 중심으로 온라인 카페에서 작가 작업 이미지들을 모아놓음.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활동 사진자료 이미지들을 모아놓음.

## 2. 아카이브 구축 방향

### 가. 공간에서의 자료 공유와 역사 기록

-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공간에서 작업한 작가들의 작업, 공간사업 등 자료들을 비치하고 볼 수 있게 제공함.

### 나. 작가 홍보

- 작가도록을 모아놓은 자료함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도록을 계속적으로 취합
- 별도의 도록을 제작해서 국내 및 해외에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며(대안공간 반디), 이를 통해 작가들의 작업이 연계되는 성과들을 냄.

### 다. 온라인의 활성화

- 온라인은 현재 가장 활용하기 쉽고 접근성이 쉬운 매체로 잘 활용되고 있음.
-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추지 않고 커뮤니티 중심의 카페나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는 비중도 높음.
- 지속적인 관리나 업데이트 등을 통한 데이터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DB 구축은 작가와 작품 소개 링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자료화나 검색 등의 활용성은 일반 검색에서 보여주는 검색 정보 이상을 넘지 않음.

## 5. 참여와 이용

### 1. 참여자(창작자)

#### 가. 지역작가 발굴과 지역연계

- 지역의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지역 신진 작가들의 참여가 활발
-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지역연계 작업에 관심 있는 작가들의 참여가 활발함.
- 매개공간 미나리는 대인시장과 연계해 예술가 창작/발표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과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는 광주의 대부분의 라이브클럽이 없어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공간으로, 지역의 인디밴드를 위한 공간이자 타 지역 밴드들과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뮤지션을 발굴하는 데는 인디뮤직씬이 활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청주 하이브 캠프는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작가 지원이 유명작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소외되는 지역 작가에 대한 지원과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차별적인 방향 설정
- 스페이스 빔은 ‘인천’이라는 지역과 예술의 매개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려 함. 공공 미술 작업이나 작가들의 작업에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하는 작업들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함.
-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는 안양천 프로젝트나 석수시장 프로젝트 등의 작업을 통해 지역을 연계한 작업을 펼쳐 작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

#### 〈매개장 운영자들이 진단하는 각 지역별 지역 작가 및 예술계 현황〉

“부산은 문화공간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많은 인력들이 성장하면 서울이나 외부로 빠져나가 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구축이 미흡하다.” (대안공간 만디 디렉터 김성연)

“청주 하이브 캠프는 지역의 예술인 풀이 적어 큰 규모의 축제를 통해 창작교류와 지역 매개의 장을 만들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다.” (하이브 캠프 이송주 매니저)

“광주 지역은 문예회관이나 시립미술관 등이 주류 작가들을 위한 지원공간으로 활용되어 대부분의 미술작가나 인디밴드들은 발표공간을 얻기 쉽지 않다. 오히려 상업공간인 기업에서 운영하는 화랑이 신진작가, 지역작가를 위한 기획전을 주로 담당해 왔다.” (매개공간 미나리 최윤정 큐레이터)

“많은 예술가들이 지방에서 성장하지만 서울로 또는 해외로 진출해 지역 기반으로 창작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소외감 내지 결핍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비서울권 매개장 운영자들의 공통적 지적)

#### 나. 장르간 교류

- 공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타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특정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참여를 원함.
-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에 장르 경계를 없애는 경향이 높음(하이브 캠프, 후용공연 예술센터,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등). 한편, 시각예술이 중심인 공간의 구조적 한계로 시각예술 중심의 활동을 넘어서는 타 장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음(하이브 캠프).
- 축제의 형식을 통해 집약적으로 복합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예술가 교류 시도(안덕별 예술제, 매미시장, 일상에서 예술하기, 물레아트페스티벌, 경계없는예술 등)
- 지역에 예술인 풀이 적거나 연계하기 어려워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작가 및 프로그램 교류 욕구가 높고, 해외와의 교류에 적극적(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다. 작가촌 형성

- 문래예술공동단은 초반에는 서울 도심의 높은 지가와 번잡함을 피해 들어온 작가들이 주를 이룸. 현재는 작가촌으로서의 문래동을 찾아오는 경향도 높음. 장르적 기반이 뚜렷한 작가들이 모여 다양한 작업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작가들의 작업실이 모이는 작가촌을 형성하는 곳이 늘어남(매개공간 미나리와 대인시장,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와 석수시장 등).

### 라.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 시지프스의 하늘은 공간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안문화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자발적으로 공간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스페이스 빔, 대안공간 반디처럼 아카데미, 교육 등에 참여하는 예술가, 지역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여구조를 넓힘.

### 마. 해외 예술가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중에는 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음(문래예술공단,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후용공연예술센터, 하이브 캠프,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등). 이를 통해 참가자들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짐.
- 해외교류는 국내 초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의 역할도 함.

## 2. 이용자(관객)

### 가. 지역 상가와와 연계

- 매개공간 미나리는 대인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활동의 주요 장이 대인시장이 되고 있음. 쇠락해가는 대인시장에 작가들의 작업실이 입주하여 지속적인 관계맺음을 준비하고 있음. 작가 작업실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준비중.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는 안양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 공공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음. 또한 석수시장 내에 입주해서 석수시장의 빈 점포를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석수시장 상인들과의 작업을 펼침.
- 철제상가에 위치한 문래예술공단은 철제상가 거리에 디자인 작업들을 펼치고, 공연 또는 전시를 위한 물품 제작에서 도움을 받기도 함. 문래예술공단은 지자체의 아트팩토리 사업을 활용해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연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가들의 작업 인프라와 커뮤니티에 좀더 집중됨.

### 나. 축제를 통한 지역 연계

- 축제는 단기간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모인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지역과 연계한 예술활동으로 축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음.
- 축제는 지역에서의 공공미술 형태로 거리 공간조성 활동이나, 거리예술제의 형태로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모여 공연, 전시를 진행
- 하이브 캠프는 공간이 위치한 안덕벌을 중심으로 거리예술제와 공공예술 성격을 띤 안덕벌예술제를 펼치고, 인근에 위치한 청주예술대학 학생들을 기획협력 파트너로 참여시켜 함께 축제를 준비함.

#### 다. 이용자 커뮤니티 구성

- 지역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수강생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공간 관심도가 높아 자원봉사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스페이스 빔, 대안 공간 반디 등)



## 제4절 축제

## 1. 개괄

## 1. 일반 현황

〈표 3-21〉 축제 설립연도 및 운영 주체

지역	구분	개최년도	운영 주체
서울	(독립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1998 (2002)	(독립예술제사무국) 1998 서울프린지네트워크(2002)
	서울변방연극제	1999	서울공연예술가모임(1998) 변방연극제 사무국
	한국실험예술제	2002	한국실험예술정신(2000)
	예술시장 프리마켓	2002	일상예술창작센터(2002)
제주	제주 거리예술제	2002	테러 J (1999) 제주거리예술제 준비위원회
부산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2003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2002)

- 1998년 ‘독립예술제’ 시작, 2002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축제 명칭 변경
- 1999년 서울변방연극제 시작
- 1999년 테러 J는 ‘제주문화살리기운동본부’ 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며 거리공연을 시작, 2002년 제주 거리예술제로 발전함.
- 2002년 서울에서 한국실험예술정신, 예술시장 프리마켓이 시작됨.
- 1998년에서 1999년, 2002년에 출발한 축제들이 대부분으로 올해로 7~10회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 제주 거리예술제 머리에꽃을(2005년), 서울변방연극제, 한국실험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06년)은 올해의예술상 다원예술 부문에서 상을 수상함.

## 2. 축제 운영방향

〈표 3-22〉 축제 운영방향

매개장명	축제의 지향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민주주의와 문화다원주의를 위한 대안문화축제</li> <li>독립예술의 창작교류와 창작활성화를 목적으로 함.</li> <li>차세대 예술가를 발굴하는 장</li> </ul>
서울변방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로운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을 모토로 함.</li> <li>대안실험극과 젊은 공연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함.</li> </ul>
한국실험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실험예술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실험적인 예술, 즉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인터미디어아트, 실험극, 마임, 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분야의 조화를 기반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의 장</li> </ul>
예술시장 프리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마켓은 거리와 공원 등 일상의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대안적인 자생예술시장 이자 축제</li> <li>작가들은 창작한 작품을 가지고 나와 선보이며 시민들이나 다른 작가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성장</li> </ul>
제주 거리예술제 - 머리에꽃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외 및 해외 예술인들과 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가하여, 제주도 전 지역을 돌며 다양한 공연, 설치미술, 전시작업 및 퍼레이드 등을 펼치며 예술의 소통을 꾀하는 거리문화예술축제</li> <li>“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를 가진 제주 섬, 그 안에 문화와 삶을 동반하는 자들이 만나 치열한 삶에서 오는 힘겨움과 설레는 갈망들을 사뿐히 머리 위에 꽃처럼 얹고 싶다.” - 머리에꽃을</li> </ul>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재창출</li> <li>인권, 반전, 환경, 빈곤, 여성, 장애인 등 문화의 사회적 발언</li> <li>유흥업소와 소비문화 일색인 부산대앞 대학로를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다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적인 문화거리로 조성</li> </ul>

### 가. 신진예술가 발굴의 장

-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개방적인 축제 운영방식을 통해 예술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신진예술가를 발굴하는 장을 마련(서울프린지페스티벌)
- 공개모집, 선발의 과정에서 새로운 작가발굴을 목표로 함(서울변방연극제).

### 나. 대안문화의 모색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원주의를 추구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함.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는 문화의 사회적 발언들을 축제의 형식을 통해 담고자 함.
-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예술의 엄숙성에 대항해, 일상과 예술창작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 다. 실험과 다양성 추구

- 특정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활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음.
- 정규 공간이 아닌 대안공간, 거리 등에서 다른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들과 만나고자 함.

#### 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 부산과 제주 지역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건강한 거리문화 살리기 등의 가치를 내걸고 시작.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을 좀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구성
- 제주 거리예술제는 ‘문화유목민’이라는 컨셉으로 제주 전역을 예술가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공연과 전시, 토론 등 예술활동을 펼치며 지역과 만남.
- 서울의 경우, 한국실험예술제, 예술시장 프리마켓,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흥대앞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흥대앞 문화예술단체, 공간과도 연계해 축제를 펼치며 지역과 관계 맺음.

### 3. 축제 참가방식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공개모집 자유참가, 자체 프로그램 기획  
독립예술제는 예술가들의 동인제 성격이 컸고, 차츰 자유참가 운영원리가 만들어짐.  
참가설명회, 인터뷰 제도 등 참여자 지원과정을 둬.
- 서울변방연극제 : 작품 공모 → 서류 심사 → 구두발표 → 개별 인터뷰 → 선정  
사전 워크숍과 구두발표 과정, 토론 과정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한국실험예술제 : 자체 프로그램 기획, 자유참가
- 예술시장 프리마켓 : 작가 등록 신청 → 심사 → 작가 인증 → 프리마켓 참여  
프리마켓 참여를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 작품이어야 함.
- 제주 거리예술제 : 자체 프로그램 기획, 제안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 자체 프로그램 기획, 진행

#### 4. 장르 기반

〈표 3-23〉 축제의 장르

구분	주요 장르	세부 장르	비고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공연예술,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미술전시	실내, 거리
서울변방연극제	공연예술	연극, 무용 등	실내, 거리
한국실험예술제	공연예술, 시각예술	퍼포먼스	실내
예술시장 프리마켓	시각예술, 공연예술	미술, 음악공연	거리
제주 거리예술제	공연예술, 시각예술	연극, 음악, 미술	거리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공연예술, 시각예술	무용, 음악, 미술전시, 퍼포먼스	실내, 거리

- 서울변방연극제와 한국실험예술제는 공연예술 비중이 큼.
-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작가들의 아트상품 시장과 함께, 인디뮤지션 공연이 열림.
- 미술전시는 주로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 회화의 형식보다 설치, 그래피티 작업이 많음(서울프린지페스티벌,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 제주 거리예술제는 벽화 그리기, 꾸미기, 장소 기록 등 공공미술 성격이 많음.

#### 5. 2008년 개최 현황

- 축제의 역사가 대부분 6년에서 11년으로 비교적 장기간 운영되어 옴.
- 대부분 1주일에서 3주간 장기간 운영
-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일반적인 축제의 유형과는 달리 일상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공간 역시 고정되어 있음.
- 부산의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축제 진행.

〈표 3-24〉 2008년 축제 개최 현황

구분	회차	기간	장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11회	2008. 8. 14~8.30(17일)	홍대앞 실내/거리, 서울 시내(45)
서울변방연극제	10회	2008. 11. 6~11. 16(11일)	대학로, 홍대, 광화문 등 대안공간(7)
한국실험예술제	7회	2008. 9. 3~9. 7(5일)	홍대앞 실내/거리(5)
예술시장 프리마켓	7주년	2008. 3~11(매주 토, 9개월)	홍대앞(1)
제주 거리예술제	7회	2008. 9. 16~9. 30(17일)	제주도 전역(12)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6주년	2008. 3~12	부산대앞 거리 일대, 온천천, AGIT

구분	예술가	해외교류	자원봉사자	후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70여팀 (해외 5팀)	아시아 (중국, 홍콩, 태국)	120명	문화관광부, 서울시, 마포구
서울변방연극제	국내 7팀		20명	서울문화재단
한국실험예술제	15개국 50팀 150명	북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		문화예술위,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예술시장 프리마켓	등록 700명 / 일 100명		15명(연2회 모집)	문화예술위
제주 거리예술제	2개국 38팀/개인	아시아 (일본)	5명 이내	문화예술위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네트워크로 진행	일본, 중국, 프랑스	15명 내외	부산시청, 금정구청, 한국메세나협의회

구분	프로그램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실내공연예술제, 야외거리예술제 오프닝 페스티벌, 달려라 프린지, 아티스트 워크숍 학술행사, 해외교류 (초청공연 및 학술행사) 축제카페 운영, 축제신문 발행
서울변방연극제	공연 (극장공연, 대안공간 공연) 학술행사, 아티스트 워크숍 비평 프로그램(관객비평단 운영)
한국실험예술제	극장공연, 야외공연 전시행사(자료전, 사진전, 설치미술전) 학술세미나, 워크숍 취중진담 (아티스트 교류 프로그램)
예술시장 프리마켓	생활창작 아티스트(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교환 및 판매 음악 및 다양한 장르의 공연 특별 전시와 시민참여 생활창작워크숍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인디밴드 공연 전시, 퍼포먼스, 그래피티 등 시각예술, 공예 매년 축제의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외부단체 연계
제주 거리예술제	공연, 미술작업, 퍼레이드, 토론회 등 작업(공연 및 설치미술 등)의 장소와 시간은 약속된 스케줄이 아닌 이상 작가 스스로 선택해서 진행 건기와 손수레를 이용한 이동, 텐트촌 공동 주거 *문화유목민 : 축제의 진정성을 찾고, 작가와 마을, 사람이 삶에서 만나는 장

## 2. 특징과 역할

### 1. 축제의 특징

#### 가. 각 축제의 지역적 기반

-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과 제주도, 부산의 큰 세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네 개의 축제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음. 특히 3개 축제는 홍대앞을, 1개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음. 공연장 등 인프라가 있고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밀집공간이 축제에의 연결성을 가짐.
- 한국실험예술제는 초기 홍대앞을 주요 거점으로 하다 강원도 등 지방으로 거점을 옮기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홍대앞에서 진행하고 있음. 홍대앞의 소극장, 갤러리, 클럽 등에서 공연/전시 진행
-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초기 대학로에서 개최했고, 2001년(4회)부터 홍대앞을 거점으로 축제 개최, 소극장, 라이브클럽, 갤러리, 거리 등에서 공연/전시 진행. 홍대앞만이 아닌 다른 공간을 찾아가는 활동 (달려라프린지, 배달공연 등)
-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2002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홍대앞 놀이터에서 시장을 열어옴. 매주 시장을 열어오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놀이터가 상징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음. 노점상 및 주변 상가와와 마찰, 상업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외부 행정적 시선은 갈등 요소임.
- 서울변방연극제는 대학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공간’을 화두로 인사동, 광화문, 홍대 등 지역을 확장하고 있음.
- 제주 거리예술제는 2006년부터 ‘문화유목민’의 컨셉으로 제주 전역을 이동하며 공연을 펼침. 특정 공간의 창출이 아닌, 지역의 역사성 속에서 예술을 통한 소통을 하는 작업. 테러 J는 1999년부터 ‘제주문화살리기운동본부 테러J’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리공연을 하면서부터 시작, 이후 2002년 ‘제주 거리예술제-머리에꽃을’이라는 축제로 발전했는데, 문화유목민을 통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참하는 작업으로 발전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는 2003년 미술, 공연, 아트마켓 등 다양한 영역의 독립예술단체, 개인들의 연합체로 거리축제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후 기획단 체제로 바뀌면서 축제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인 기획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됨.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가 주최하는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는 부산대앞 거리와 인근 온천천을 중심으로 진행됨. 온천천은 국제적으로 그래피티 작가들의 참여가 활발한 지역임. 사회단체와의 연계 행사 기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예술의 사회적 발언을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하고자 함.

#### 나. 복합장르, 다장르 작업 진작

- 초기에는 축제들에서 연극, 퍼포먼스, 미술 등 장르를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이 모였으나, 축제가 거듭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축제로의 경향을 보임.
-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초기부터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이 참여
-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아트상품 전시/판매와 더불어 인디밴드 공연 섹션이 진행됨.
- 축제들이 '장르'에 대한 명확한 경계짓기를 극복하고자 함.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부문예술제에서 실내/야외로 통합, 제주 거리예술제, 한국실험예술제도 공연과 미술의 영역이 확장되고 섞이는 경향을 보임.

#### 다. 실험성에 대한 주목

- 기존에 검증된 작업을 심사과정을 통해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업들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을 열어놓음.
- 한국실험예술제는 아방가르드한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실험성 강한 축제. 시각예술을 중심에 둔 퍼포먼스 성격이 많음.
- 서울변방연극제는 다른 사람과 협력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작가 발굴에서 실험성을 큰 축으로 둠.

#### 라. 네트워크 활성화

-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정 공간에 모이는 축제의 경우, 예술가들의 창작/발표도 중심이 되지만 축제를 통해 축제공동체적 소통과 교류를 중시함.
- 프로그램의 한 축은 예술가 워크숍 같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교류를 중심에 둔 작업들이 있음.
- 시각예술이 시각공간을 벗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축제는 다원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좀더 빨리 진행됨.

### 마. 거리공연을 통한 접근성 강화

- 거리를 주요한 축제 공간으로 설정. 예술가들이 관객을 만나기 어려웠던 초기에 거리공연들은 관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장임. 관객들에게는 대중매체를 통해 만나기 어려운 작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 축제들이 작품의 구성요소로 ‘공간’, ‘거리’ 등을 주목하면서 공연무대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관객들과 가까이서 만나고자 함.

### 바. 예술가 발굴 및 활동 기회 확장

- 축제사무국은 예술가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한 예술가들의 발굴을 통해 예술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을 모색
- 축제를 전후로 한 연간 창작지원 활동이나 거점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예술가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감.

## 2. 참여 예술가 지원

〈표 3-25〉 축제 참여예술가 지원

매개장명	참여 예술가 지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의 문화예술활동 기획, 공간 활동, 뉴스레터, 웹진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창작활동과 교류 도모</li> <li>• 스튜디오 사용 지원</li> <li>• 기획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 도약의 장 마련</li> </ul>
서울변방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변방연극제에서의 초연작품, 이후 2~3년 재레퍼토리 작업으로 개발되거나 다른 축제 참가를 통해 작품이 개발되고 있음.</li> <li>• 참가 연출들은 신진예술가 선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li> </ul>
한국실험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의 작가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혹은 단체로 실험적인 예술활동과 공연 참여</li> <li>• 자료 발간을 통해 실험예술에 대한 DB 구축</li> </ul>
예술시장 프리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연계 사업을 개발해 프리마켓 작가 참여장 마련</li> <li>• 공간을 중심으로 한 창작강좌나 워크숍 통해 작가지원 및 활동 기반 마련</li> </ul>
제주 거리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파리연구소의 국내 및 해외 자체 창작/발표</li> <li>• 간드락소극장을 연계한 공연</li> </ul>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예술가들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자체 기획행사를 통하여 작품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 합주실, 스튜디오, 갤러리, 시각예술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중</li> </ul>



- 축제 참여 예술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들이 이루어짐.
-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창작지원 활동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됨.
- 소극장에서의 창작/발표(테러 J), 스튜디오 등에서의 창작활동 지원(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작가 워크숍과 시민 워크숍 등을 통해 예술가 활동의 장 마련(일상예술창작센터,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 3. 운영주체의 주요 활동

#### 1. 운영주체의 활동 특징

가.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한 일상 창작지원 및 교류

- 축제에는 준비, 실행, 평가 등 거점 공간이 없이 체계적인 진행이 어려움. 또한 축제 자체가 가진 집중적인 에너지와 순간성이 너무 크고, 규모가 커서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음.
- 축제를 일시적인 시공간성을 넘어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쉽지 않는데, 공간은 일상적인 연계와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제주 거리예술제 : 2004년 교회건물을 개조해 간드락 소극장(70석)을 마련하여, 테러 J의 전문문화기획집단인 '자파리연구소'의 창작/발표 공간이자 축제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함.
- 제주 거리예술제는 추후 공간을 확장해서 초청교류 예술가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을 갖추어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좀더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사무공간 중심의 공간에서 2007년 공간을 이전하면서 예술단체, 개인 작가들과 공동 입주하고, 워크숍 등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일상적인 교류와 창작지원의 장 마련. 또한 프린지 스튜디오(약 30평)를 마련하여 공연 연습, 소품 공연발표, 워크숍 등의 작업실로 활용
-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같은 공간에 입주하면서 작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작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음.

나. 창작활성화

- 축제 개최를 통해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
- 신진예술가 및 비주류 공연에 대한 공연기획 지원활동
- 외부 연계 사업을 통해 예술가 참여의 장 확대
- 한국실험예술정신, 테러 J는 기획활동 외에도 창작자로서 자체 창작공연들을 진행
- 서울변방연극제 사무국,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등은 기획, 매개 활동 중심

#### 다. 예술가 매개활동

- 축제 이외에도 공연 등의 기획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 지원
- 하우스 예술파티, F+프로젝트, 작가모임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가 교류 지원

#### 라. 학술 및 연구

-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정책과 예술현장에 대한 담론의 장 마련
- 웹진 발간을 통해 독립예술 창작현장 발굴과 예술가 네트워크(독립예술웹진 인디언 밥)
- 무크지 발간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실험예술에 대한 담론 확산과 자료 DB 구축(실험 예술정신)

#### 마. 공간 운영

- 창작/발표공간 운영(생활창작공간, 프린지 스튜디오, 간드락 소극장 등)
- 대관보다 자체 기획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공연, 워크숍 등)

#### 바. 국제교류

-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 독립예술 소개 및 예술가들의 해외 창작교류 도모(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2002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교류 시작)
- 제주 거리예술제는 일본과 지속적인 교류 진행. 축제 기간 일본의 공연팀 참여. 테러 J의 창작작품도 일본에 초청되어 공연 진행
- 한국예술실험정신은 실험예술, 퍼포먼스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작가들의 작업을 초청 하고 DB 구축
-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는 외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외와의 교류활동을 가짐. 대안문화공간 아지트에서 숙박 지원.

〈표 3-26〉 축제 운영주체의 주요 활동

운영주체	주요 활동
서울공연예술가모임 (서울변방연극제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변방연극제 개최</li> <li>• 창작활성화 제작공연 : 모임 회원 연출가 및 변방연극제를 통해 발굴된 젊은 연출가 공연(연1회)</li> <li>• 공연기획 지원</li> </ul>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활성화 및 창작지원 기반 활동(서울프린지페스티벌 개최, 창작 스튜디오 운영 등)</li> <li>• 학술 및 연구(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발간, 독립예술 포럼 등)</li> <li>• 매개/교육 프로그램(마임워크숍, F+프로젝트,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li> <li>• 기획 프로그램(넥스트웨이브페스티벌, 창작실험극 레퍼토리 등)</li> <li>• 공연기획(한국마임, 예술가 공연기획 지원 등)</li> <li>• 아시아 독립예술 네트워크 구축 (넥스트웨이브아시아, 해외 창작교류 등)</li> </ul>
한국실험예술정신 (한국실험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실험예술제 개최</li> <li>• 하우스 예술파티</li> <li>• 예술제 기획 : 서울, 왕산, 울산 등 퍼포먼스 페스티벌 기획진행</li> <li>• 자료집 발간 : 매년 실험예술 자료집 발간, 실험예술 전문 무크지 〈실험예술정신〉 2008창간</li> <li>• 해외 네트워크 : 일본 작가와 교류, 2007년부터 유럽으로 확대</li> <li>• 어린이예술마당 위탁운영</li> </ul>
일상예술창작센터 (예술시장 프리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시장 프리마켓 운영(3월~11월)</li> <li>• 생활창작 강좌(연 10회)</li> <li>• 작가모임(신입작가모임, 비정기 작가모임)</li> <li>• 세미나 및 워크숍(비정기)</li> <li>• 마포희망시장 운영(3월~11월)</li> </ul>
테러 J, 자파리연구소 (제주 거리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거리예술제 개최</li> <li>• 창작극 페스티벌</li> <li>• 자체 기획공연</li> <li>• 마임워크숍</li> <li>• 간드락소극장 운영</li> </ul>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진행(3월~11월)</li> <li>• 대안문화공간 AGIT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포럼, 세미나, 워크숍, 마을축제, 공공예술 프로젝트)</li> </ul>

## 2. 아카이브 운영

### 가. 출판

- 한국실험예술정신은 2006년부터 실험예술 전문 무크지 <실험예술정신>을 창간, 현재 3호까지 발간함(2006. 1호 실험예술 어떻게 볼 것인가, 2008. 2호 한국 퍼포먼스 아트 40년, 2008. 3호 유럽의 실험예술).
- 축제의 프로그램 북이 예술가 DB의 역할을 하며, 해외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대부분 국문과 영문 제작을 고려함.
- 축제 평가 및 결과자료집을 통해 축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김.
- 거리예술제는 문화유목민 컨셉으로 축제 형태를 전환한 이후, 사진 정보 공유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사전 프로그램 북 발간보다는 사후 결과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집 제작.

### 나.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

- 축제는 매년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홍보 및 아카이빙의 역할을 함.
- 한국실험예술정신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영상, 발간물 등의 KoPAS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으며, "arts and science"라는 주제로 각종 사진자료와 서적들 소개. 또한 KoPAS Network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연혁과 사진자료를 정리하여 실험예술가 DB를 구축

### 다. 기타

- 한국실험예술정신은 실험예술 관련 사진자료 10만장 이상, 비디오자료 1000여장 이상을 보유
- 서울변방연극제의 경우, 2008년 공간 자체를 축제 10년 아카이브로 활용하면서 인력, 활동의 현재에 대해 관객에게 보여줌 (프로젝트성 단기 작업)

## 제5절 매체

## 1. 개괄

## 1. 일반 현황

- 매체는 1개의 인쇄매체와 2개의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함.
- 발행지역은 서울과 부산에 집중해 있으며, 독자는 매체 모두 전국 대상으로 함.
- 문화잡지 보일라는 부산지역 문화잡지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전국적인 배부처를 가짐.
- 가슴네트워크는 웹진으로 시작, 외부 참여 시스템으로 전환 시도중.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은 가장 최근 창간한 매체로, 격주 발행
- 매체들은 인터뷰와 리뷰 형태로 신진 작가 소개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음.

〈표 3-27〉 매체 일반 현황

구분	문화잡지 보일라	가슴네트워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유형	인쇄매체	온라인 매체	온라인 매체
발행지역	부산	서울	서울
대상(독자)	전국	전국	전국
설립년도	2002년 6월	1999년 11월	2007년 7월
발행형태/배포	월간 인쇄매체 배부처 및 정기구독	비정기 웹진 메일링 서비스 및 총서발행	격주 웹진 메일링 서비스
형태변화	1-6호 138p A5 소책자 7-29호 32-40P 타블로이드 신문 30-42호 32-40P A4 중철잡지 43-68호 현재 32-40P B5 중철잡지	1999년 11월 '대중음악/문화 비평웹진 가슴' 창간, 2007년 12월 '가슴네트워크'로 진화, 2008년 12월 가슴네트워크 2차 오픈	현재 웹진 26호 발행
내용 구성	신진작가 인터뷰, 인디밴드 인터뷰, 문화공간 취재, 칼럼, 리뷰와 프리뷰, 단편소설과 만화 연재, 기획기사	편집장 추천음반, 편집장 추천싱글, 특집, RADIO, 가슴음반 가이드, 고정필자코너	현장포커스(리뷰와 프리뷰), 연재(인터뷰와 현장취재), 특집, 에세이

## 2. 편집진 및 필진

- 문화잡지 보일라는 오프라인 매체의 특성상 상근자가 있을 때, 필진과 구독자의 관리가 체계적임. 발행 초기부터 운영되던 귀뚜라미 기자제는 현재 인력부족으로 정기모임을 중단함.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은 초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편집위원을 구성해 독립예술 콘텐츠의 방향성을 잡았음. 필진은 내부의 고정 필자와 더불어 매호 주목할 만한 활동에 외부 필자를 섭외해 리뷰 등 진행.
- 가슴네트워크는 운영방식의 전환을 통해 대중음악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포털을 지향. 아카이브와 비평의 강화, 독자 참여를 통한 홍보 역할의 강화에 집중. 외부 기고는 블로깅 방식으로 확장하고자 하며 초기 시작단계임.

〈표 3-28〉 매체 운영인력 현황

구분	문화잡지 보일라	가슴네트워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주요 운영 인력	• 편집장 1, 고정필진 10, 외부필진 10	• 편집장 1, 고정필진 15, 외부필진 다수	• 책임편집 1, 고정필진 3, 외부필진 다수
필진 발굴	• 독자참여 → 귀뚜라미 기자제(수습기자제) • 인터뷰와 취재를 통한 필진 발굴 • 온라인 카페를 통한 원고 투고 및 제안	• 편집장 중심의 기획에서 블로깅 방식으로 전환(2008)	• 기사의 성격에 따른 필자 섭외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필진 발굴
편집방향	• 기본 콘텐츠를 유지하며, 분기별 기획호를 발행	• 문화포털 지향. 아카이브와 비평, 홍보의 창구	• 특집 및 기획 기사를 통한 독립예술 심층 기획

## 3. 매체별 특징

- 문화잡지 보일라는 신진예술가의 소개가 특징적임. 초기 2, 3년간은 지역을 고려한 집중적인 기획과 콘텐츠로 구성하다 전국으로 넓혀짐. 이는 배부처 확대에 영향을 받음.
- 가슴네트워크는 2008년부터 대중음악 중심에서 문화 전반으로 관심을 확장함. DB 구축을 통한 아카이빙과 예술인력의 네트워크를 중시함.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은 공연예술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며, 다양한 영역을 다룸. 독립예술의 지역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적인 기사 발굴에 힘씀.

〈표 3-29〉 매체별 특징

구분	문화잡지 보일라	가슴네트워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주요 장르	• 독립예술 전반	• 음악(대중예술)	• 독립예술 전반
주요 콘텐츠	• 신진예술가 발굴, 독립 문화공간의 홍보	• ‘문화예술전문매체 & 문화 기획자그룹’을 지향하며 네트워크 도모	• 독립예술가의 네트워크 • 독립예술 현장 기록과 담론 형성
특징	• 오프라인 매체의 성격상 독자가 바로 볼 수 있는 비주얼 중심의 구성	• 현재 음악에 집중되어 있으나 문화예술 전반으로 관심과 네트워크 확장 도모 (기획자 네트워크 중시)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의 비중이 높음 • 장르별 독립예술의 크로스 오버 기사 및 담론 형성



## 2. 유통망과 홍보

### 1. 매체별 유통망과 홍보

- 문화잡지 보일라는 배부처의 정비와 조건설정으로 서울, 부산의 정기구독자를 축소하고 타 지방으로 배부처를 확대. 인력부족으로 배부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정 지역에 밀집. 재정부족으로 부수 증가와 이에 따른 배부처 확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
- 가슴네트워크는 블로깅 방식으로 독자의 기사 참여가 열려 있으며, 이로 인한 선별적인 기사 선택에 어려움도 예상됨. 콘텐츠의 가공과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슴 총서로 책자 발행, 온라인 포털이나 지면 신문에 기사 연계가 활발함.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은 독립예술 활동을 다루는 매체가 많지 않아 기사에 대한 집중도는 높은 편임. 웹진 홍보에 좀더 힘을 실을 예정.

〈표 3-30〉 매체의 유통망과 홍보

구분	문화잡지 보일라	가슴네트워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
유통변화	• 서점, 멀티플렉스→문화공간	• 내부 기획→블로깅을 통한 독자 참여	• 온라인(메일링)
효과	• 신진작가와 공간을 소개함 • 창작발표의 장으로 쓰임	• 다양한 글과 그에 따른 관점이 생산됨	• 독립예술을 다루는 매체의 부족으로 예술가들 사이에서 주목도 높음
홍보	• 공간으로의 배부는 또 다른 배부처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고 구독자의 증대를 가져옴	• 콘텐츠의 가공과 활용이 홍보로 이어짐 (예,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발행 등)	• 별도의 홍보활동은 아직 미약한 편, 구독자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2. 구독자

### 가. 인쇄매체

- 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 문화잡지 보일라는 개인구독보다 공간을 중심으로 배부. 편집진이 배부처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음. 많은 곳에서 배부 요청이 들어오지만 대중 대량배포보다는 1차 독자가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배부처로

#### 우선 선정

- 배부처는 각 지역별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
- 현재 부산의 대학가와 서울의 홍대앞을 중심으로 한 배포가 가장 많으며, 앞으로 16개 권역을 중심으로 고루 배부처를 개발하고자 함.

#### 나. 온라인 매체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은 회원가입한 독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해 회원가입 수를 통해 구독 규모를 측정할 수 있으며, 별다른 홍보를 진행하지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가슴네트워크는 2007년 운영방식의 전환 이후 본격적인 가동이 12월말에 시작되는 시점이라 활발한 움직임을 체크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슴 필진과 외부의 자율적인 소개/리뷰 등을 통해 예술인과 일반인의 구독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임.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의 경우,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보다는 예술인들의 구독률이 높아 보임.

### 3. 아카이브 운영

#### 가. 출판

- 가슴네트워크는 웹진 가슴을 통해 다루어지는 콘텐츠를 〈가슴네트워크 총서〉라는 이름으로 출판 진행중

#### 나.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

- 가슴네트워크와 문화잡지 보일라는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온/오프에서 콘텐츠를 공유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은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축

### 3. 매개장으로서 매체의 기능과 역할

#### 1. 기능과 역할

##### 가. 현장의 다양한 예술활동 발굴 소개

- 현장에서는 많은 예술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소수의 작업만이 일반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어 다양한 많은 예술활동들이 알려지지 않음. 예술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매체가 부족한 현실.
- 사례로 제시된 매체들은 신진예술가들의 작업, 미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일반 대중에 대한 문화적 확산도 주요 역할 중 하나이나, 예술인들에게 타 예술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네트워크의 기반을 만드는 것도 주요한 역할로 인식

##### 나. 장르를 넘어서는 다양한 영역 소개

- 문화잡지 보일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가슴네트워크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등 운영진의 성향에 의해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있지만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함.
- 영상, 만화, 사진, 문학 등도 주요한 영역으로 설정하는데, 아이템이나 필진 발굴이 쉽지는 않음.

##### 다. 지역의 예술활동 발굴

- 대부분의 문화예술활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매체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사례로 제시된 매체들은 특정 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지방의 사례 발굴도 주요한 방향으로 가짐.
- 지역의 문화단체, 문화공간, 문화행사 등을 통해 필진을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망을 구축

##### 라. 비평인력 개발

- 다장르, 복합장르의 작업은 현재 예술활동의 경향성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술비평

이 기존 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거나 다매체가 결합하는 방식, 장르적 경계가 없는 경향, 기존 정규극장을 벗어나는 형태가 많은 공연들에 대해 비평을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가져 필진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원예술을 다루는 매체들은 새로운 예술, 탈장르 예술의 비평품을 만드는 데 기여함.
- 문화잡지 보일라는 외부 기자단 교육 프로그램으로 ‘귀뚜라미 기자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고,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은 2009년 비평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가슴네트워킹은 일반의 기자 참여를 개방하는 등 자체에서 비평품 개발 방안을 모색.

#### 마. 기록

- 문화잡지 보일라는 과월호 보관, 네이버 카페에 각호별로 파일을 올려놓음으로 인쇄 매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100호 특집판과 과월호에 대한 DB 작업을 준비중.
- 가슴네트워킹은 콘텐츠를 인쇄매체 출판과 연계해 꾸준한 아카이빙작업을 보여줌.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은 데이터 분류를 통한 검색기능 강화 및 태그작업 준비중.

## 2. 매체의 발전 방향

#### 가. 이슈 발굴과 기획의 체계화 필요

- 대부분 리뷰, 인터뷰 중심의 개별 작업에 대한 소개가 중심이 되고 있음. 창작활동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매체의 성격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의 발굴과 시의성을 놓치지 않는 기획 및 특집 등 콘텐츠의 다양화 필요
- 토론, 세미나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접근, 매체간의 네트워크 필요.

#### 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 필진과 비평품의 개발 필요
-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다. 매체 활동에 대한 피드백

- 매체 활동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매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의

- 모색이 필요. 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받는 방안 필요
- 홍보 활동을 통한 매체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제6절 운영인력 현황

## 1. 매개장의 법적 성격 및 활동 성격

〈표 3-31〉 매개장의 법적 성격

법적성격*	공간	축제	매체
법인	하이프 캠프		
비법인사설	후용공연예술센터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대안공간 반디	서울변방연극제	가슴네트워크 문화잡지 보일라
임의단체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위터 스페이스 빔 매개공간 미나리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문래예술공단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한국실험예술제 예술시장 프리마켓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제주 거리예술제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법적 성격 : 국공립단체, 법인, 비법인 사설단체, 기타

- 법인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비영리 사설단체 :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기타 : 임의단체

## 1. 매개장의 법적 성격

- 대부분 임의단체의 성격으로 전문예술단체의 형태를 띤.
- 유일하게 법인의 형태를 가진 하이브 캠프는 청주민예총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민예총 산하의 기관이라는 인식이 많음.
- 후용공연예술센터,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등은 비법인 사설 전문예술단체의 운영의 형태를 띄지만, 극단 노플, 극단 새벽 등이 모체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설의 형태를 가질뿐 독립적인 운영형태는 아님.
- 대부분의 매개장이 임의단체의 성격으로 운영되며, 전문예술단체로서 매개장 운영 전문성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음.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는 초기 공연장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공간 이전 후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황. 등록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소방법에 따른 공간정비가 필요해 절차가 까다로움. 공간 이전시 내부 사정으로 공연장 등록을 해지한 것을 아쉬워함.

## 2. 매개장의 활동 성격 특징

〈표 3-32〉 매개장의 활동 성격

활동성격*	공간	축제	매체
창작자 네트워크	하이브 캠프 문래예술공단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문화잡지 보일러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전문예술단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후용공연예술센터 시지프스의하늘 대안공간 반디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스페이스 빔 매개공간 미나리	서울변방연극제 한국실험예술제 예술시장 프리마켓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제주 거리예술제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가슴네트워크

\* 활동성격 : 전문예술단체, 창작자 네트워크, 모임, 기타

\* 전문예술단체 : 문광부의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무관하게, 전문적인 운영주체 자기인식

- 매개장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음.
- 공간의 법적성격과 활동성격은 자기표시를 하게 하였는데, 공간의 경우 대체로 ‘비영리’라는 표현을 드러냈다.
- 법적성격에 대해 비법인 사설단체와 기타(임의단체)에 대한 인식들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임의단체인데 법인으로 표시).
- 대체로 공공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시각예술 기반으로 한 곳은 비영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곳들도 5군데로 파악(일상예술창작센터,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매개공간 미나리, 모리에서다,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등). 최근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2. 인력 운영현황

〈표 3-33〉 인력수 및 근무형태

구분	명칭	총인력수	근무형태		
			상근	반상근	기타
공간	문래예술공단	120			50여 단체/개인
	서울프린지네트워크		5		
	일상예술창작센터		3	2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6~7	4	2~3	
	스페이스 빔	6	3	3	
	후용공연예술센터	9	9	0	
	하이프 캠프	11	2	8	1(비상임)
	매개공간 미나리	24	2	22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2	0	2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36	1	3	32(비상임)
	대안공간 반디	4	3	1	
	시지프스의 하늘	13	7	6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7	7	0	
축제	서울변방연극제	25	2	1	1
	서울프린지페스티벌	50	5	6~7	
	한국실험예술제	15	4	11	
	예술시장 프리마켓	20~25	3	2	15~20 활동가
	재미난복수 거리축제		7		
	제주 거리예술제	10	4	5	1 (비상임)
매체	가슴네트워크	3	1	1	1 (비상임)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6	2		4 (비상임)
	문화잡지 보일러	3	3	0	

\* 대체로 운영주체와 공간, 매체의 조직 구성이 일치. 축제의 경우 축제를 위한 중단기 인력 확장 시점이 있기 때문에, 상근 인력이 조직 운영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1. 운영 조직 구성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조직적인 업무분장과 조직구성도를 가진, 스페이스 빔은 정책 팀, 학술팀, 교육팀 등 세분화하고 팀 자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정책팀은 지역 의정활동 감시 등의 시민단체의 성격도 강하게 보여줌.

- 스페이스 빔과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대안공간 반디, 매개공간 미나리,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보편적으로 사용함.
- 창작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는 매개장은 작가풀을 반상근의 형태로 넣음 (하이브 캠프 8인, 매개공간 미나리 22인,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32인 등)
- 상근 없이 반상근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음(컬처클럽 네버마인드). 이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외부 기획활동을 통해 공간을 운영하는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순환구조를 가짐.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공간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여가 낮으며, 수요자 역시 자원봉사자로 유입되지 않는 어려움을 보임.
- 후용공연예술센터는 9명이 상근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과 대안문화공간 아지트도 7명으로 다음으로 높음(후용공연예술센터는 극단 노뜰이 공간을 운영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도 극단 새벽의 인력이 문화쉼터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함께 운영).
- 대안문화공간 아지트는 공간 안에 여러 영역의 활동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 상근인력 운영

- 전문인력 지원제도 활용 여부를 보면, 문화관광부의 예술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서울프린지, 극단 노뜰),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지원(문화잡지 보일러) 등 전문인력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높지는 않음.
- 상근 인력은 그 공간의 시스템을 만들고, 기록하고, 기획하는 주요 동력으로, 다양한 사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매개장은 전문인력 양성소의 역할을 담당
- 대부분 인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업무들에 대한 분담도 쉽지 않음.
- 인력충원은 조직의 미션과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 자원활동가의 스텝 참여율이 높음.

### 3. 자원봉사자 운영

〈표 3-34〉 자원봉사 운영 현황

구분	매개장명	유입경로	주요 활동	규모	비고
공간	스페이스 빔	공개모집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강좌나 세미나를 들었던 인력 중심 “대안문화 네트워크” 활동	공간 프로그램 제안, 운영		
	대안공간 반디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전시 안내, 행사 진행지원		교육자 중 1~2명 참여 동서대, 동의대 연계지원
	매개공간 미나리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	전시 진행지원		
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공개모집	축제 진행 지원 (공연, 홍보, 축제운영 등)	120	
	서울변방연극제	공개모집	축제 진행 지원	20	
	한국실험예술제	공개모집	축제 진행 지원	20	
	예술시장 프리마켓	공개모집 (연 2회)	매주 열리는 프리마켓 공연진행, 시장운영 지원	20	
	제주 거리예술제	자발적 참여	축제 지원	4~5	

#### 가. 운영현황

- 축제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경우가 4곳(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울변방연극제, 한국실험예술제, 예술시장 프리마켓 등 4곳), 공간의 경우 4곳 (스페이스 빔,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 대안공간 반디, 매개공간 미나리)에서 운영하고 있음
- 하이브 캠프에서 ‘안덕별예술제’를 진행할 때 청주예술대학과 연계한 경우, 매개공간 미나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한 섹션으로 진행된 ‘대인시장 북덕방 프로젝트’처럼 시민 자원봉사자를 프로젝트에 따라 결합시킴.

-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나 축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스페이스 빔, 대안공간 반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울변방연극제, 한국실험예술제, 예술시장 프리마켓).
- 창작자 커뮤니티 성격의 매개장은 외부의 자원활동가보다는 내부의 작가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별도의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지 않음(재미난복수 거리축제, 무대예술워크숍 페스티벌, 제주 거리예술제).
- 공간 운영이나 축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참여자가 절대 부족한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함.

#### 나. 유입경로

-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시민들이 자원활동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음.
- 공간을 통해 일상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경우, 작가들도 자원활동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많음.
- 축제는 공개모집을 통해 한시적, 집중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인력을 활용
-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은 강좌나 세미나를 들었던 인력이 ‘대안문화 네트워크’ 그룹으로 활동하며,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 참여

#### 다. 다원예술 매개장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위치 및 역할

- 자원봉사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객이자 후원자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
- 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개장들은 일반적인 행사나 프로그램 지원의 소극적인 역할을 주는 곳도 있지만, 행사 기획이나 공간 운영 등 좀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함.
- 문화자원봉사는 문화예술 애호가로서 시민이 문화예술로 유입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봉사 차원이 아닌 세심한 참여 프로그램들을 조직해야 하므로 작은 일이라도 참여의 의미를 찾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개장에서는 한번이라도 작업에 연계된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해 일들을 돕는 경향이 많음. 공연이 대부분 프로그램에 결합하는 반면, 시각예술은 공간 유지보수 및 디자인에서부터 공공미술 등 일상

결합의 범위가 넓음.

- 매개장의 핵심은 사람인데, 자원봉사로 활동하다 조직의 스태프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활동
-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 1984년 극단 새벽을 설립하고 1985년 소극장 실천무대를 여는 데 약 1,000여명의 참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음. 현재 '대안문화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후원회 조성을 위한 활동중. 전담 운영 인력이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제4장

---

### 다원예술 창작지형도

제1절 : 범주와 대상

제2절 : 창작자 기반 및 활동형태와 성격

제3절 : 매개장과 다원예술창작활동

제4절 : 지역적 특징

제5절 : 정책현황과 수요

## 제1절 범주와 대상

### 1. 정의

#### 1. 정책용어로서의 정의

- 다원예술은 기존 예술정책에서 소외된 영역-실험, 인디, 대안, 복합, 대중예술 등의 집합적 용어로 사용되어왔음.<sup>21)</sup>
- 그러나 예술현장의 다원적 변화양상과 이의 정책적 수용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르에 대한 실험적 시도’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을 정책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개념 정립과 관점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다원예술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안함.

“다원예술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

#### 2. 의의와 한계

- 기존의 정책적 맥락을 수용하면서도 집합적 개념과 장르적 정의를 넘어,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함.<sup>22)</sup>
- 현재진행형의 창조적 가치 지향적 예술 영역으로서의 불가피한 개념의 개방성이 요청됨.<sup>23)</sup> 이에 따라 다원예술에 대한 선험적 미학적 정의보다는 현재의 활동양상

21) 다원예술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는 아래와 같음

년도	사업명	비고
1990년대	비상업적 대중예술지원	독립영화, 비주류 대중음악 등 포함
1997년	실험예술지원 신설	지원신청 저조, 부실사업으로 이듬해 폐지
1998년	제1회독립예술제 개최	기성예술의 장르가 아닌 비주류 예술로서 독립, 인디, 대안예술의 지원 필요성 환기
2001년	독립예술지원	
2002년 ~ 2005년	다원적 예술지원	독립예술분야, 탈장르 복합예술분야 등 다양하고 새로운 경향의 예술활동 수용
2006년~	다원예술지원	‘다원적 예술지원’ → ‘다원예술지원’ 명칭변경

다원예술위원회 1차포럼 “다원예술 낙선폭럼” 양효석의 발제(「다원예술지원정책의 현황」) 요약.

22) 이에 대해 「다원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는 “① 기성예술 관습의 대안적 개념 ② 장르예술의 상대적 개념, ③ 새로운 예술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려는 전략적 개념, ④변화에 유연하고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려는 개방적 개념” 등 복합적 개념 정의를 제안함.

에 기반한 범주의 구성이 필요함.

- ‘실험’ ‘독립’ ‘대중예술’ ‘다원적’ 등 정책적 맥락을 수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치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용어 하에 포괄하는 데에서 혼란의 여지를 남김.<sup>24)</sup>

〈표 4-1〉 다원예술 명칭과 정의에 대한 전문가 그룹 조사 결과<sup>25)</sup>

다원예술 명칭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예술이 충분한 표현은 아닌 반면, 우리의 다원예술분야 현실을 충칭할 적절한 개념을 찾기 또한 이름.</li> <li>· 다원이란, 사전적 의미로 ‘요소나 근원이 여러 갈래, 또는 많은 근원’을 뜻함. 다원예술 역시 실험적이라든가 대안적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li> <li>· 예술적 실험에는 내용 및 형식적 실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원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체계와 형식체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게 열려 있음.</li> </ul>
다른 명칭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예술’ : 기존 예술형식을 새롭게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확장 작업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은 세월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재생산 될 것임.</li> <li>· ‘독립예술’ :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 이후 컨템포러리 예술이 당위화 되어 주류예술 가들도 다원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예술이 지원받아야 하는 환경이 되었음.</li> <li>· ‘뉴장르 공공예술’ : 낙후된 지역을 찾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의 진정성과 당위성은 다양한 소수의 문화예술이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li> <li>· ‘새개념 예술’의 사용 제안과 다원예술 분야 활동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바탕으로 명칭에 대한 ‘의미화 과정’ 및 ‘새롭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타의견도 조사되었음.</li> </ul>

\* 가치, 형식을 포괄하는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개방적 개념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다원예술’ 명칭에 동의하는 반면, 새로운 예술활동의 지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는 양상을 보임.

### 3.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예술가 인식(매개장을 중심으로)

- 매개장 심화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다원예술에 대한 예술가 인식은 다음과 같음.

23) 우주희는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에서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다원예술의 주요 개념 요소와 요소의 대립성’을 별도의 절을 두고 살피고 있다.

24) 이진아,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 『예술지원정책 릴레이 토론회-시각다원예술』, 문화관광체육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주최, 2008.  
다원예술의 정의에 대한 가장 큰 혼란은 다원예술이라 지칭되는 예술활동의 공통적 특징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원소위가 제기한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 이 세 양상을 공히 아우르는 예술활동이 다원예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5)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pp.22-23.

〈표 4-2〉 다원예술 매개장 운영자들의 다원예술 인식\*

## ① 매개의 다원적 성격

- 매개공간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장르의 경계가 모호해짐. 작가에게 잘 어울리는 장소(지역)와 관계(사람)를 매개함으로써 모든 장르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는 것 (보충대리 공간 스톤앤워터)
- 기존 장르예술 따로 있고 다원예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의 예술영역에서 삶과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활동을 하되, 제한을 두지 않고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옳은 방향 (스페이스 빔)

## ② 장르 관습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

- 기초 장르를 축으로 개발하고, 실험되어 완성한 또 하나의 장르. 연극을 10이라고 보면, 다원예술 안에서는 어떤 장르도 10이 되어야 함. 어떤 파생이나 변형이 아닌, 기초 장르를 축으로 개발/연구/실험하여 어떤 예술가가 완성시킨 하나의 또 다른 장르(극단 노틀)
- 탈 장르간 복합적 예술 행위(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작품 안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것이 연극이기에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원화(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
- 장르의 교류를 통한 복합적인 예술, 탈장르를 시도하는 실험예술, 공공가치를 실천하는 네트워크 가능한 예술(문화잡지 보일러)

## ③ 다양한 예술주체의 적극적 소통

- 예술가의 생태를 베이스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새로운 소통의 시도들. 삶의로서의 예술, 삶에서의 예술이 진행되고 소통되는 현장이나 지점들(하이브 캠프)
- 각각 전문화에 따른 장르의 구분은 오히려 예술활동 자체에서 예술인들이 서로에게 소외되는 양상을 만들. 다른 영역의 작업들을 만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새로운 형식을 모색할 수 있는 시도. 그 영역 안에서 비평과 담론이 재생될 필요가 있음(매개공간 미나리)
- 하나의 장르라 해도 어떤 방식으로 확장하고 소통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방향으로서 다원의 개념 필요. 내부적으로 확장된 다각적 시도. 무엇보다 활동의 진정성, 내용과 질적인 평가도 중요(대안공간 반디)
- 동시대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열린 태도 (서울변방연극제)

## ④ 예술과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 모색

- 사회와 문화예술이 관계맺기를 통해 예술의 언어로 풀어낼 때 다원의 형태로 나타남(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현재의 문화적 트렌드와 사회적인 현실을 접속하는 예술, 당대와 소통하는 예술 형태(가슴네트워크)

\*다원예술 매개장 심화조사 인터뷰 자료

- ‘다원예술’에 대한 매우 다양한 이해와 접근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실험’ ‘소통’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의 공통적 지적도 드러남.
- 더불어 ‘작품’이라는 결과보다는 예술가와 예술가 소통, 예술과 사회의 소통 등과 같이 ‘과정’에서 다원성을 제시하고 있음.



## 2. 범주와 대상<sup>26)</sup>

### 1. 다원예술의 실험성은 장르와 명확한 경계를 갖는가<sup>27)</sup>

- 다원예술분야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분야(장르)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 54.2%가 신청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 31.2%가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음.(〈그림 2-7〉 타분야 지원사업 신청여부 〈그림 2-8〉 타분야 지원사업 선정여부 참조). 다원예술이 여타 장르예술의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활동과의 겹침이 인정됨.
- 그러나 창작자의 입장에서 다원예술과 여타 장르예술활동과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의 1/3만이 장르예술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주목할 점은 다원예술 이외 분야에 지원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수가 45.8%에 이르고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예술활동이 여타의 장르예술활동과 뚜렷히 변별되는 새로운 영역이라는 인식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기존 장르와의 경계의 모호함은 다원예술의 정의, 범주, 대상에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장르의 경계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상호적인 것임.

### 2. 다원예술은 신진예술가의 충원기능인가, 기존 지원정책의 완충지대인가, 독자적인 예술영역인가<sup>28)</sup>

- 마찬가지로 다원예술과 여타 장르 예술활동과의 경계에 대한 쟁점이라 할 수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원예술이 기존 장르예술의 일정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보이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예술활동 기간이 짧을수록 다원예술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26) 이 절의 가, 나, 다는 『다원예술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제4장 다원예술 쟁점과 과제 1-2) 지원영역에서 서술하고 있는 쟁점을 토대로 서술했음.

27) 이 쟁점에 대해 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p.40).

- 다원예술의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은 예술일반의 가치와 어떻게 변별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옴. 특히 현대예술에서 장르의 경계가 끊임없이 전복되어왔다는 점에서 기존 장르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옴.  
- 그러나 지원제도에서 기존 장르의 지원이 '진흥'의 관점에서 '수월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관습적 관행적 예술매체, 예술방법, 예술개념에 저항하는 실험적 예술활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8) 이 쟁점에 대해 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신진작가들이 기성예술계로 나가는 '사다리' 기능인가, 그 자체로 동시대의 특정한 예술활동이 독자적으로 자리잡고 교류하는 '운동장' 기능인가.  
-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지원영역으로 개념설정이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장인가, 그 자체로 동시대의 예술경향을 확정하여 영역화하는 하나의 예비 장르, 준예술계인가?

다는 것(〈표 2-10〉 문화예술활동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기간 참조). 물론 이들의 예술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예술활동이 특정 장르로 이전하거나 수렴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신진예술가들의 경우 다원예술이 여타 장르예술활동과 변별되는 독자적 활동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두드러짐.

- 다원예술창작자 연령군, 활동기간, 매개장 설립추이 등을 비교할 때 90년대 말이 공통적 시점으로 드러남(제3장 제2절 3-가 매개장 설립추이 참조).
- 90년대 말 이후 10년 정도의 경과에서 다원예술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3. 제도화된 예술계 밖에서 벌어지는 다문화적 예술실천<sup>29)</sup>

- 다원예술의 실험성 다양성 독립성은 비단 ‘작품’이라는 결과에만 한정되지 않음. 특히 과정에 대한 관심은 제도를 벗어난 다양한 예술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
- 매개장 활동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음. 특히 지역 매개장의 경우 작가들의 예술활동과 지역의 커뮤니티, 지역 현안과의 연계 사업에서 다양한 예술실천이 확장되고 있음(제3장 매개장 현황 중 매개공간 미나리,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스페이스빔의 지역연계사업 참조).
-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창작자 통계 조사에서도 실험예술 이외의 공동체 소통, 종다양성 추구, 공공가치, 독립예술, 비주류예술 등의 가치 지향적 활동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1/2에 해당하고 있음(제2장 창작자 현황 〈그림 2-2〉 다원예술 활동성격 참조).
- 매개장 활동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예술활동의 사회적 연계가 확장되면서 장르 확장, 장르 복합의 양상이 드러남. 특정 장르 기반의 매개장이 다원예술적 영역으로 확장됨.

29) 이 쟁점에 대해 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현대에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 자체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현대예술에서 제도화된 예술계 밖에서 벌어지는 다문화적 예술실천이 왕성히 벌어지고 있음. 다문화적 예술실천은 예술의 실험성, 중 다양성의 역동적 활동장이므로 이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제2절 창작자 기반 및 활동형태와 성격

### 1. 창작자 기반

#### 1. 30대, 서울

- 일반 문화예술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연령,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보임(〈표 2-3〉 다원예술 창작자 기본특성 참조).
- 연령대에서는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문화예술활동기간에서 10년 이하가 5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에서도 확인됨(〈표 2-9〉 다원예술 활동기간). 이 구간대의 창작자의 경우 다원예술활동이 전체 문화예술활동기간과 일치하고 있음(〈표 2-10 문화예술활동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활동기간).
- 그러나 연령 지역 분포에서 일반 문화예술실태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2. 기존 예술에 대한 문제의식

- 일반 문화예술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다원예술에서 예술전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그림 2-1 예술관련학과 전공 여부〉).
- 이는 다원예술창작자군의 형성이 예술계와 동떨어져있었다기보다는 기존 예술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사대상이 작품 중심의 지원제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의 한계가 있음.

#### 3. 장르 및 활동의 연계 양상의 확산

- 예술관련학과 전공 및 문화예술활동의 기반 장르에 대한 응답에서 시각예술의 비율이 가장 높음(〈표 2-5〉 예술계열 세부전공, 〈그림 2-5〉 문화예술활동 기반장르).
- 문화예술활동 장르기반 세부전공에서 시각예술의 경우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즉 전통적 회화 장르보다는 새로운 매체와 컨셉 미술에서 기존 장르의 경계에서 새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개장에서 공간유형의 경우 시각예술 기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표 3-9〉 매개장 장르 기반).

- 이는 90년대 이후 시각예술의 대안공간 활동이 ‘작품’에서 ‘과정’으로 확장되고 복합화되면서 드러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 이는 공연예술 기반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남(노뜰 후용예술센터의 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극단 새벽의 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대안예술네트워크 등).
- 축제와 매체는 특정 장르 기반이기보다는 복합적 양상을 드러냄. 특히 거리예술과 같이 기존 제도화된 공간을 벗어난 경우 복합적 양상이 두드러짐.
- 최근 개관한 공간들은 특정 장르나 특정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들을 매개하는 지향을 보임(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매개공간 미나리 등).

## 2. 활동형태

### 1. 기획, 워크숍, 교육 등 창작/발표 이외의 다양한 활동형태

- 창작활동 형태에 대한 설문에서 기획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그림 2-3> 활동형태).
- 이외에도 교육이 창작/발표보다 응답률이 높으며 워크숍은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 창작/발표와 같은 ‘결과’ 중심의 창작활동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10년 이하의 활동기간을 가진 사람의 경우 행사기획 활동의 비중이 높음. 반면 11년 이상 20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진 경우는 창작/발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다원예술분야에서 입문해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 창작활동, 예술활동의 형태에서 좀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 공간 유형의 매개장 확장 - 활동의 지속성, 안정화의 필요

- 매개장 유형에서 공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술활동의 안정화 지속화와 연관됨(제3장 제2절 4. 공간 축제 매체의 발전 양상).
- 축제 유형의 경우에도 점차 공간을 운영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축제라는 집중적 집약적 장 이외에 다원예술 활동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3. 과정 중심의 활동

- 창작/발표 이외의 다양한 활동형태에서 드러나는 것은 ‘과정’ 중심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매개장의 지속성, 안정성에 대한 추구는 ‘매개’ 활동 자체가 ‘과정’ 중심 활동인 데에서 비롯됨.
- 공간유형의 경우 창작/발표 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레지던스,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표 3-15> 보유공간상세).
- 기존 예술제도가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원예술의 특징을 좀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3. 활동성격<sup>30)</sup>

#### 1. 실험성

- 새로운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 예술 등 기존 예술형식에 대한 실험을 중심으로 한 예술을 실험예술 계열이라고 보았을 때, 실험예술 계열의 활동이 전체의 50.0%임(<그림 2-2> 다원예술 활동성격). 이중 복합장르 응답률이 가장 높음.
- 매개장의 활동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도 복합장르 응답률이 가장 높음(<표 3-11> 매개장 다원예술 활동 성격).

#### 2. 공동체 소통, 공공가치, 종다양성 추구 등 가치지향

- 공동체 소통, 공공가치, 종 다양성 추구 등 가치 지향적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한 응답이 32.4%를 차지함
- 다원예술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실험예술’ 인데 반해 예술가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예술활동도 다원예술의 비중 있는 활동으로 나타남
- 매개장 조사결과는(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 실험성과 가치지향이 고르게 드러남(<표 3-11> 매개장 다원예술 활동 성격).
- 이는 실제 활동에서는 형식적 실험과 가치지향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3. 독립예술의 분화

- 독립예술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창작자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남. 이는 독립예술이 다양한 가치와 성격으로 분화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매개장 활동에서는 여타 항목과 비슷한 응답 빈도를 보임.
- 조사대상, 조사방법의 차이로 양측 조사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창작자 개별 창작활동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성격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반면 매개장 활동의 복합적 양상에서는 독립예술적 지향이 여전히 주요한 것으로 분석됨.

30) 활동성격의 범주는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을 구체적인 양상과 가치로 구분한 것으로, 2008년도 다원예술정기공모 신청서에 신청자가 직접 기입했던 항목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함.

### 제3절 매개장과 다원예술활동

## 1. 창작/발표

### 1. 유형별 특징

- 공간, 축제, 매체 등 창작/발표 활동은 모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매체의 경우 비평 및 작가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창작/발표 활동과 연관됨).
- 축제는 집중적, 집약적 발표장을 제공함으로써 장르 중심의 예술유통구조에서 다원 예술 발표장으로 주요한 역할을 함.<sup>31)</sup>
- 공간유형의 매개장은 축제의 집중성과 달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발표 공간을 제공함.

### 2. 창작/발표 공간 수요

- 매개장에서 창작/발표 공간의 비중은 창작/발표 공간에 대한 창작자들의 수요가 높은 것과 연관됨.
- 과정 중심의 활동 등의 특징적 양상이 보이지만 이는 일반 문화예술활동과의 상대적 측면으로 창작/발표 공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음(〈그림 2-11〉 다원예술영역 창작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 창작공간 소유형태에서 공공/사설 무상임대는 10.7%에 머물고 있으며, 이외는 개인 소유 등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한편 발표 공간은 공공/사설 정규 공간은 48.6%로 절반정도에 머물고 있음.

31) 2004, 2005,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한 '올해의 예술상' 다원예술부문에서 축제가 다수 수상작으로 선정된 데에는 다원예술창작활동에서 축제의 역할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 2. 창작자 네트워크

### 1. 공간 기반

- 공간의 경우 별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거나 창작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간유형에서 축제사업을 진행하거나 축제유형 매개장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등의 복합화 양상이 일반적임. 개별 작가, 개별 작품의 창작/발표 외에도 공간을 기반으로 한 ‘축제’ 등의 사업으로 기능이 확장되기도 함. 무대예술워크숍 페스티벌이나 부산 국제미디어페스티벌은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작가들의 창작교류 장을 만든 사례. 대안문화공간 재미난복수는 지속적인 거리공연으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창작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어냄.

### 2. 축제 기반

- 축제의 경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정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창작자 네트워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짐.
- 또한 축제 기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예술가 워크숍과 같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교류 사업을 진행함.
- 축제 기간 이외에도 하우스 예술파티, F+프로젝트, 작가모임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가 교류 지원.

### 3. 국제교류

- 창작자 네트워크는 국제교류로 확장되는 추세임.

〈표 4-3〉 매개장의 국제교류활동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아시아 독립예술 네트워크 구축
제주 거리예술제	일본공연팀과 상호 초청공연 등 진행
한국예술실험정신	실험예술, 퍼포먼스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작가들의 DB 구축
대안문화공간 재미난복수	외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외와의 교류활동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국제교류활동의 거점 역할
후용공연예술센터 하이프캠프, 문래예술공단	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레지던스 운영



### 3. 창작자 지원

#### 1. 레지던스

- 하이브 캠프는 레지던스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톤앤워터, 후용공연예술 센터, 매개공간 미나리,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대안공간 반디,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문래예술공단 등이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음.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석수시장)와 매개공간 미나리(대인시장)는 근거리의 시장과 연계하여 작가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음. 시장 내 빈 상가는 작가들의 작업실로 사용되며, 대인시장 입주작가는 프로젝트성이 아닌 장기 거주를 위한 입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교육/홍보/비평

- 작가들의 자발적인 자기 PR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표 4-4〉 매개장에서 운영하는 작가 홍보 프로그램

- 매개공간 미나리 ‘자발적 PR전 - ShowRoom’
- 대안공간 반디 작가 홍보 도록 해외 발송.
- 미술비평매체 발간을 통해 미술비평을 확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의 젊은 기획자 양성 사업 추진(대안공간 반디, 스페이스 빔 등).

- 축제의 경우 공간운영 등을 통한 창작지원 활동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됨.

〈표 3-25〉 축제 참여예술가 지원 참조

- 소극장에서의 창작/발표(제주거리예술제 간드락소극장)
- 스튜디오 등에서의 창작활동 지원 (프린지 스튜디오,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작가 워크숍과 시민 워크숍 등 (생활창작공간 새끼).

## 4. 지역연계

- 비수도권의 경우 공간유형의 매개장은 지역 작가 발굴,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시민대상 문화예술활동 등이 활발함(〈표 3-19〉 공간 지역연계 사업).
-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환기.

〈표 4-5〉 매개공간 지역연계 사업

스페이스 빔	공공미술 작업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안양천 프로젝트, 석수시장 프로젝트
문래예술공간	철제상가 거리 디자인, 공연 전시 물품 제작에서 도움을 받기도 함.
하이프 캠프	안덕벌예술제, 일상적인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지역과 연계한 예술활동

- 축제에서도 개최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표 4-6〉 축제 지역연계 프로그램

- 테러 J는 1999년부터 ‘제주문화살리기운동본부 테러J’ 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리공연을 하면서부터 시작, 이후 2002년 ‘제주 거리예술제-머리에꽃을’ 이라는 축제로 발전
- 제주 거리예술제 ‘문화유목민’ 은 2006년부터 ‘문화유목민’ 의 컨셉으로 제주 전역을 이동하며 공연을 펼침. 특정 공간의 창출이 아닌, 지역의 역사성 속에서 예술을 통한 소통을 하는 작업.
-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는 2003년 다양한 영역의 독립예술 단체, 개인들의 연합체로 거리축제 기획단으로 출발. 사회단체와의 연계 행사 기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예술의 사회적 발언을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하고자 함.
- 재미난복수가 주최하는 재미난복수 거리축제는 부산대앞 거리와 인근 온천천을 중심으로 진행됨. 온천천은 국제적으로 그래피티 작가들의 참여가 활발한 지역임.

## 5. 아카이브

### 1. 오프라인 공간 전시

- 스톤앤워터는 '까페 리자드'를 중심으로 각종 시각예술 자료 및 활동자료를 보관
- 대안공간 반디는 공간 내에 전시도록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 시지프스의 하늘도 공간을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여 연극자료 400여편, 인문사회 과학 서적을 보유하고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매개공간 미나리는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및 공연 자료, 지역 문화단체의 자료집을 모아 공간에 비치하고 있으며, 작가들에게 아카이빙 참여 독려
- 서울변방연극제의 경우, 2008년 공간 자체를 축제 10년 아카이브로 활용하면서 인력, 활동의 현재에 대해 관객에게 보여줌(프로젝트성 단기 작업).

### 2. 웹을 통한 자료 축적과 공유

- 온라인 카페에 작가 작업 이미지 축적(하이브 캠프,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스페이스빔은 온라인을 통해 <계간 시각> 콘텐츠 공개. 공공미술, 문화정책, 문화교육, 예술론, 지역(인천)미술, 철학 등의 자료 공개.
- 한국실험예술정신은 홈페이지에 사진, 영상, 발간물 등의 KoPAS 기록물 축적. "arts and science"라는 주제로 각종 사진자료와 서적 소개. KoPAS Network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연혁과 사진자료를 정리하여 실험예술가 DB를 구축
-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작가들을 소개.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은 데이터 분류를 통한 검색기능 강화 및 태그작업을 준비 중.
- 문화잡지 보일라는 과월호 보관, 네이버 카페에 각호별로 파일을 올려놓음으로 인쇄 매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100호 특집판과 과월호에 대한 DB 작업을 준비중.

### 3. 출판

- 스페이스빔 <계간 시각> 발행
- 한국실험예술정신은 2006년 실험예술 전문 무크지 <실험예술정신> 창간(2006. 1호 실험예술 어떻게 볼 것인가, 2008. 2호 한국 퍼포먼스 아트 40년, 2008. 3호 유럽의

실험예술).

- 가슴네트워크는 웹진 가슴 콘텐츠를 ‘가슴네트워크 총서’ 로 출판 진행중

#### 4. 기타

- 한국실험예술정신은 실험예술 관련 사진자료 10만장 이상, 비디오자료 1,000여장 이상을 보유

## 제4절 지역적 특징

### 1. 창작자 창작활동 집중도

- 창작자 거주지 분포에서 서울/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지만 일반 문화예술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표 2-3〉 다원예술 창작자 기본특성, 〈표 2-4〉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기본특성) 즉 문화예술활동의 서울/수도권 집중도의 일반적 경향을 보임.
- 서울의 집중도는 높지만 서울과 서울 이외 여타 지역과의 대비되는 활동성격 등에서 대비되는 특징이 드러남.

## 2. 서울/비서울의 특징적 양상<sup>32)</sup>

### 1. 서울, 창작자 집중과 발표 공간 부족

- 창작공간수요에서 서울의 경우 발표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 비서울은 창작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제2장 제4절 '1. 공간현황 및 수요' )
- 매개장의 지역적 분포를 볼 때 서울에서는 축제가 비서울에서는 공간이 두드러짐. (제3장 제2절 '2. 유형별/지역별 현황' )
- 서울의 경우 창작자의 집중도가 높고 공적 사적 문화예술 인프라가 형성되어 창작공간에 대한 수요는 일부분 해결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발표공간은 부족한 현실을 드러냄.
- 이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집중적으로 발표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축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축제의 발전양상에서 공간 등 일상적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 공간만으로는 발표공간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 축제의 한시성으로는 다원예술의 창작활동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서울만이 아니라 다원예술 전반에서 드러나는 점인데 '〈표 2-21〉 다원예술 창작자의 발표공간 유형' 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사설 문화예술시설을 발표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정도(48.6%)로 여타 문화예술인프라가 다원예술창작활동에 여전히 개방적이지 않다고 분석됨.<sup>33)</sup>

〈표 4-7〉 거주지에 따른 창작형태 교차 심화분석

- 창작형태에 대한 거주지 교차분석에서 서울/비서울 모두 행사기획에 대한 응답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서울은 '교육' 비서울은 '창작/발표' 활동에 대한 응답율이 높음.
- 이는 서울의 경우 창작자 집중도가 높은 만큼 창작형태에서 다양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행사/기획과 창작/발표의 경계가 다원예술에서는 다른 장르 예술활동에 비해 완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2) 문화예술의 높은 서울 집중도 때문에 경기/인천에서도 서울 이외 지역의 양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서울/비서울로 구분함.

33) 물론 이러한 분포는 다원예술활동이 기존의 제도화된 공간을 벗어난 실험적 대안적 양상에서 비롯되는 점도 있음.

## 2. 비서울, 매개를 중심으로 한 복합적 양상

- 활동성격에 대한 설문에서 비서울의 경우 공동체 성격에 대한 응답율이 높음.
- 창작공간 수요에서 서울 거주자의 경우는 발표공간이 가장 필요하다(52.5%)고 응답한 반면 인천/경기(50.5%)와 수도권 외 지역(43.9%)에서는 매개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비서울은 공간 유형의 매개장이 특히 활발함.(〈그림 2-11〉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이하 심층분석 참조)
- 비서울 매개공간의 경우 시각, 연극 등 특정 장르기반에서 출발하여 다원예술활동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임.(제3장 제2절 ‘3.시기별 추이’ ) 또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축제 등 활동의 복합화 양상도 보임.
- ‘독립문화 거리축제’ (부산), ‘제주 거리예술제-머리에 꽃을’ 등 비서울 축제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건강한 거리문화살리기, 지역의 삶과 예술의 만남 등 지역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냄.
- 비서울에서는 매개장을 중심으로 창작/매개/발표 등 다양한 층위의 창작활동이 지역 사회 현안 지역예술 활성화 등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면서 장르복합 탈장르 복합장르의 양상을 띠고 있음.

## 제5절 정책현황과 수요

### 1. 지원사업 현황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집중

- 2006~2008년도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1회 신청자가 전체의 63.4%로 높게 나타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에 계속 새로운 창작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액에 대한 설문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표 2-16>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영역 지원금액). 이는 여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외 기관들에 비해 높은 액수를 드러냄
- 창작형태에서 자료 발간이 3년 연속 신청 비율이 높음. 이는 발간 사업을 창작활동의 범주로 수용하는 다원예술 지원 심의 경향(혹은 그러한 심의 경향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됨.
- 활동성격에서는 독립예술, 비주류예술에서 3년 연속 신청 비율이 높음. 독립예술, 비주류예술의 경우 실험예술계열(복합장르, 탈장르 등)에 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 이외에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분야 이외

-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 여부의 설문결과, 선정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6.5%, 여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5%임.(<그림 2-10>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 사업 선정여부)
- 이는 다원예술 영역의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음과 동시에 일정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됨. 하지만 아직까지 다원예술영역 지원 사업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거주지역 교차분석에서 서울 외 지역에서 타 기관 선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인천/경기 지역 55.6%, 수도권 외 지역 46.3%, 서울 38.9%)
- 이는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함.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서울 집중도가 높아 비서울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이외의 타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 ② 비서울에서 지역연계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지원기관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 다는 분석.
- 비서울 매개장 활동에서 보이듯이 다원예술활동의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좀더 정치한 분석이 요구됨.

## 2. 지원 수요 및 지원정책 방향

### 1. 매개장에 대한 정책적 주목

- 현재의 지원사업은 개별 창작활동의 결과 중심 지원에 머물고 있음.
- 반면 매개장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장르 기반의 활동이 창작/매개/발표 등의 예술활동의 다양한 층위가 복합화되면서 다원예술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예술의 제 범주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의 주요한 장임
- 매개장 활동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주목은 결과 중심 사업 구조를 극복하고 예술활동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개장 활동에 대한 정책적 주목이 필요함.<sup>34)</sup>
- 2009년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확대가 요구됨.

### 2. 서울/비서울의 특징적 양상에 따른 정책적 대응

- 일반문화예술의 서울 집중도가 특히 높은 경향은 다원예술에서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서울과 비서울의 다원예술 전개양상 및 현황에서 대비되는 특징을 보임.
- 이에 따라 각각의 특징적 양상에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됨.
- 서울의 경우 작품 중심의 창작활동에 대한 제반 인프라-발표공간, 홍보 등-와 관련한 정책이 요구되며 비서울의 경우 매개장 등 다원예술 활동 거점의 활성화가 요구됨.

### 3. 일상적 거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

- 매개장에 대한 주목은 그 기능과 역할의 복합성만이 아니라 다원예술의 일상적 거점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함.
- 그런 점에서 매개장 지원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운영 지원이 필요함. 즉 일상적 거점의 안정화라는 점에서 제도 정책의 접근이 필요함.

34) ‘과정 중심의 지원’은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보고서』와 『다원예술현장정책수요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임.

〈표 4-8〉 매개장 지원수요 인터뷰

- 상시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지원 (스톤앤워터)
- 사업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통한 운영의 안정화 (하이브 캠프)
- 공간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반디)
- 창작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공간 자체에 대한 지원 필요, 지역축제의 지원형태로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전문인력 충원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프리마켓)

#### 4. 네트워크 활성화

- 매개장의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다원예술의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의 특성이 예술가/예술가, 예술가/지역사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고 있음.
- 개별 작가 및 프로젝트 활동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주목이 필요함.

〈표 4-9〉 다원예술현장 네트워크 수요(매개장 심화 인터뷰)

##### ① 정보 교류

- 예술가 DB 구축 등 지역간 정보 교류(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 전문인력들과의 네트워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 네트워크(대안공간 반디, 가슴네트워크)
- 지역내 예술가, 예술활동 교류(문화쉼터 시지프스의하늘,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제주 거리예술제)
- 예술가, 매개, 비평 네트워크(서울변방연극제)
- 장르, 예술이념, 활동형태, 활동성격 등 상이한 예술단체와의 교류, 협력채널 확장 (예술시장 프리마켓)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경험을 가진 기획 인력풀 네트워크 (가슴네트워크)

##### ② 비평/담론 형성의 장

- 학술회의 (세미나, 비평/평론, 워크숍) 등의 네트워크 필요 (하이브 캠프)
- 비평매체의 전문인력과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 필요 (대안공간 반디, 서울변방연극제)
- 온, 오프라인 비평매체 (문화잡지 보일라)

##### ③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

- 예술가 스스로 자기 연구활동 강화 후 네트워크 확장 필요 (후용공연예술센터)

##### ④ 해외 네트워크 정보

- 제3세계(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다원예술 정보의 네트워크 (하이브 캠프)

##### ⑤ 공간 네트워크

- 개별로 접촉하기보다는 공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기획 프로그램 공유 (매개공간 미나리)

## 5. 지원 단위의 확대<sup>35)</sup>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정책에서의 집중도를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다원예술 활동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지원수요의 증가를 모두 감당하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는 재정, 인력 등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다원예술 지원제도 및 정책 단위의 확대가 필요함.
-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다원예술정책 활성화 필요
- 상상마당(KT&G), 쌈지스페이스(쌈지), LIG아트홀(LIG손해보험), CJ영페스티벌(CJ), 새라새극장(고양문화재단) 등은 다원예술(독립예술, 비주류예술, 실험예술 등)에 관심있는 기업 및 문화재단과의 정책적 협력 필요<sup>36)</sup>
- 심심공작소(전주), 문화골목/아트팩토리슘(부산), 문화공간 책마을 페다고지(울산) 등 다양한 지역문화예술활동 거점과의 연대를 위한 정책 모색

## 6. 아카이브 구축 및 비평의 활성화

- 다원예술이라는 개념과 용어에 대한 예술계 및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 정책의 수립 및 현장 연구 등에서의 혼선이 존재함.
- 정책적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원예술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대부분의 매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아카이브 사업을 기반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제기되는 개념의 문제는 정책개념으로서의 다원예술의 개방성에서 비롯되는 바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비평 활성화가 필요함.
- 개별 창작자들의 경우 아카이브 및 비평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나(〈그림 2-12〉 공공 지원 매개체의 수요현황과 요구) 다원예술정책 포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연구에서는 아카이브 및 비평 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높음.

35) 지원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확대가 어렵다면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다양한财源의 발굴 및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획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다원예술현장수요조사연구』, 32쪽)

36) 제3장 제1절 4. 조사대상 참조.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등에 대한 조사 및 정책이 필요함.

## 제5장

---

### 결론

## 1. 다원예술의 확대와 안정화

-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 중심 지원정책의 소외된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적 필요에서 출발하였으나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 을 지향하면서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활동으로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 별도의 정책대상으로서 일정한 군 형성.
- 이는 90년대 후반 독립예술제, 대안공간 등 일련의 예술운동에서 비롯된 창작자군이 기존의 예술제도로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군을 형성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됨.(다원예술 활동기간, 매개장 설립 추이 등)

## 2. 다원예술 거점의 확대와 일상화

- 특정 장르 기반의 거점에서 점차 다원예술 활동으로 확대 심화되는 매개장의 확대
- 매개공간의 경우 다원예술활동의 일상적 거점으로 창작/매개/발표 등 창작활동의 다양한 층위에서 매개역할을 담당함. 또한 예술가-예술가, 예술가-지역, 예술활동-지역 등 제분야와 예술활동의 연계 거점으로 예술의 사회적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음.
- 매개공간의 이러한 역할의 복합화와 확대는 공간의 일상성, 지속성에서 비롯됨.
- 축제 등에서도 점차 다원예술활동의 일상성, 지속성을 위해 공간운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양상임.
- 매개장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높음.

## 3. 지원 수요 증가와 지원 단위 확대

- 다원예술 창작자 및 창작활동의 확대에 따라 지원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이 지원수요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어 지원단위의 확대가 필요함.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기업의 문화활동 등과 지원제도 및 정책적 협력을 통한 지원

단위의 확대 필요.

- 또는 다양한 지원주체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지원영역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필요함.

#### 4. 아카이브 및 비평 활성화

- 현재의 개방적 정의는 일시적인 정책적 합의임. 정책적 개념의 한계, 정의의 개방성의 한계 등으로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임.
- 이에 따른 정책적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의 극복이 선형적, 미학적 정의는 아님.
- 창작자, 창작활동 등 다원예술활동에 대한 지속적 아카이빙 및 비평 활성화 필요.

#### 5. 다원예술 정책 안정화

- 다원예술은 기존의 제도적 관습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예술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정책 영역임.
- 이에 따라 한편으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변화하는 현실을 포착하는 개방성, 적극성이 요구됨. 그러나 정책의 개방성이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을 해치는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창작현장에 대한 지속적 연구조사가 필요함.
-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현장예술가들과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하며 현장예술가들의 정책 참여가 필요함.





## 2008 다원예술창작현황조사

조사기관 :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  
 담당자 : 안혜정(02-792-5051)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용역연구과제 04

2. 귀하의 주요한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3. 2번 문항에서 표시한 활동의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년    월)

❖ (4-9) 다음은 '다원예술영역' 의 창작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창작활동 중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4. '다원예술영역' 에서 귀하의 주요한 문화예술활동의 성격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2개 선택) (      ,      )

- |           |              |           |          |
|-----------|--------------|-----------|----------|
| ① 새로운 예술  | ② 탈장르 예술     | ③ 복합장르 예술 | ④ 독립예술   |
| ⑤ 비주류 예술  | ⑥ 종 다양성 추구   | ⑦ 공공가치    | ⑧ 공동체 소통 |
| ⑨ 해당사항 없음 | ⑩ 기타(      ) |           |          |

5. 다원예술영역에서 귀하의 문화예술활동의 주요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
|---------|--------|--------------|
| ① 창작/발표 | ② 행사기획 | ③ 워크숍        |
| ④ 교육    | ⑤ 자료발간 | ⑥ 기타(      ) |

6. '다원예술영역' 의 문화예술활동을 주로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도, 시 (      )시, 군

7. 귀하께서는 다원예술영역에서 창작활동을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      )년 (      )월

8. 다원예술영역에서 귀하의 작품 발표기회는 연 평균 몇 회 입니까?  
연 평균 (      )회

9. 귀하께서 다원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할 때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하십니까? (      )

- |  |
|--|
| ①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함 (10번으로)                   |
| ②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 (10번으로)                 |
| ③ 단체에 속해서 활동함 (3번을 선택하신 분은 9-1번, 9-2번으로) |
| ④ 기타 (      )                            |

9-1.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다원예술분야 단체의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 )

- ① 국공립단체(시/도/군/구립)
- ② 법인(특수/재단/사단법인)
- ③ 비법인 사설단체
- ④ 기타( )

9-2.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다원예술분야 단체의 활동성격은 무엇입니까? ( )

- ① 전문예술단체
- ② 창작자 네트워크 모임
- ③ 기타( )

9-3. 귀하께서 소속되어있는 단체에서 맡으신 직급은 무엇입니까? ( )

- ① 대표
- ② 책임·관리자 급(사무국장, 기획실장)
- ③ 일반 활동가(큐레이터, 예술가, 기획자, 창작자 등)
- ④ 기타( )

❖ (10-12) 다음은 ‘다원예술영역’에서의 공공 및 사설 기금 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10.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다원예술분야 지원 사업에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년도에 신청하셨습니까? 지원 금액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좋으니 빠트리지 말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년도	지원여부		건 수	지원 금액 (지원여부 있을 시)
1) 2006년 정기공모사업	① 있음	② 없음	회	①1000만원미만 ②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 2007년 정기공모사업	① 있음	② 없음	회	③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④5000만원 이상~10,000만원 미만
3) 2008년 정기공모사업	① 있음	② 없음	회	⑤10,000만원 이상

11. 귀하께서는 다원예술영역의 작업 활동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11-1번으로)
- ② 아니오 (12번으로)

11-1. 귀하께서 지원받으신 사업의 활동유형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창작활동 사업
- ② 문화예술교육 사업
- ③ 공간활성화 사업
- ④ 국제 예술기구 활동지원 사업
- 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 ⑥ 기타( )

11-2. 귀하께서 다원예술분야로 지원받으신 사업의 기관은 어디십니까? 지원받은 기관의 사업명 및 내용과 지원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좋으니 빠트리지 말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체(기관)	건수	지원 금액 (지원여부 있을 시)	사업명 및 내용
① 지역문화재단	회	①1000만원미만 ②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③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④5000만원 이상~10,000만원 미만 ⑤10,000만원 이상	
②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금	회		
③ 문화예술분야 사설기금	회		
④ 문화예술분야 외 공공기금	회		
⑤ 문화예술분야 외 사설기금	회		

12. 귀하께서는 다원예술분야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분야(장르)의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12-1번으로)
- ② 아니오 (13번으로)

12-1. 신청하신 적이 있다면, 실제로 지원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12-2번으로)
- ② 아니오 (13번으로)

12-2. 다원예술분야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으신 지원사업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문학
- ② 시각예술
- ③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 ④ 전통예술
- ⑤ 기타( )

❖ (13-19) 다음은 다원예술영역의 공간활용 현황 및 지원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3. 다원문화예술영역의 창작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① 창작공간 (창작/연습/집필)  
 ② 발표공간 (전시, 공연 등)  
 ③ 매개공간 (타 창작자, 장르와의 만남, 정보교류 등의 물리적 공간)
14. 귀하께서 사용하시는(본인의 자택을 제외한) 창작(연습/집필)공간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개인소유                      ② 공동소유                      ③ 공공시설 유상임대  
 ④ 사설시설 유상임대          ⑤ 공공시설 무상임대          ⑥ 사설시설 무상임대  
 ⑦ 자택을 제외한 별도의 창작(연습) 공간이 없다
15.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발표공간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 ① 공공정규 문화예술시설(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아르코 예술극장, 현대미술관 등)  
 ② 사설정규 문화예술시설(사설공연장 및 갤러리)  
 ③ 공공비정규 문화예술시설(공원, 수련원 등의 강당)  
 ④ 사설비정규 문화예술시설(카페, 대안공간 등)  
 ⑤ 기타시설(                      )
16. 다원예술영역의 창작활동에서 공공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  
 ②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행사  
 ③ 아카이브(창작활동, 정보 등의 온오프라인 DB구축)  
 ④ 비평매체(다원예술 작업을 발굴하고 소개하며, 담론을 형성하는 온오프 매체)
17. 다음중 다원예술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 귀하가 도움받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도움받는 곳을 모두 체크하시고 명칭을 적어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구분	내용
1)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매개공간	
2) 인큐베이팅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행사	
3) 아카이브(창작활동, 정보 등의 온오프라인 DB구축)	
4) 비평매체(다원예술 작업을 발굴하고 소개하며, 담론을 형성하는 온오프 매체)	

18. 다원예술영역의 창작활동을 주로 홍보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 ① 구전홍보                                      ② 개인(단체)카페 및 블로그
- ③ 동호회나 단체의 카페                  ④ 문화예술분야 정기 간행물
- ⑤ 일반언론매체(신문,TV,잡지)
- ⑥ 개인(단체)에서 직접옥외홍보물을 제작·배포
- ⑦ 기타 (                    )

19. 다원예술영역의 창작활동에 대한 비평이나 피드백은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받으시니까?

- ① 현장에서                      ② 전문비평매체                      ③ 동호회나 단체의 카페  
④ 개인(단체)카페 및 블로그    ⑤ 기타 (              )

❖ (20-24) 다음은 다원예술활동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20. 귀하의 문화예술작업에서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되는 작업은 전체 활동의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1%—20%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1%~100%

21. 귀하께서는 어떤 문화예술 부문에서 활동하십니까? 귀하의 문화예술활동이 속하는 장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① 문학                      ② 시각예술                      ③ 사진                      ④ 건축  
⑤ 국악                      ⑥ 음악                      ⑦ 연극                      ⑧ 무용  
⑨ 영화                      ⑩ 대중예술                      ⑪ 기타(                      )

문학	①소설 ②시 ③시조 ④수필 ⑤아동문학 ⑥희곡 ⑦번역 ⑧평론/이론 ⑨기타( )
시각 예술	①동양화 ②서양화 ③조각 ④공예 ⑤서예 ⑥판화 ⑦디자인 ⑧설치미술 ⑨미디어아트 ⑩만화 ⑪평론/이론 ⑫기타( )
사진	①창작사진 ②보도사진 ③상업사진 ④평론/이론 ⑤기타( )
건축	①건축설계 ②실내설계 ③구조설계 ④도시환경 ⑤평론/이론 ⑥기타( )
국악	①기악 ②성악 ③작곡 ④평론/이론 ⑤민속극 ⑥풍물(농악) ⑦무궁 ⑧전통춤 ⑨기타( )
음악	①성악 ②건반악 ③현악 ④관악 ⑤타악 ⑥오페라 ⑦지휘 ⑧작곡 ⑨평론/이론 ⑩기타( )
연극	①연출 ②연기 ③기술스텝 ④극작 ⑤제작/기획 ⑥평론/이론 ⑦기타( )
무용	①한국무용 ②발레 ③현대무용 ④평론/이론 ⑤기타( )
영화	①감독 ②연기 ③기술스텝 ④시나리오 ⑤제작/기획 ⑥평론/이론 ⑦기타( )
대중 예술	①가수 ②작곡/작사 ③연주 ④무용 ⑤연기 ⑥코미디/개그 ⑦대본/극본 ⑧제작/기획 ⑨기술 ⑩평론/이론 ⑪기타( )

## 참고문헌

### 1. 연구보고서

1. 도시문화연구소 (2007), 『문래예술공단 연구』.
2. 문화관광체육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저 (2008), 『시각다원예술 토론회자료집』.
3.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2007 공연예술 실태조사』.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소위원회별 사업 혁신방안』.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다원예술 지원정책 현장 수요 연구보고서』.

### 2. 아티클

1. 김소연 (2007), '연극 최근 경향: 연극계, 다양한 흐름의 공존', 『문화예술』 제326호 (2007년 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p.149-151.
2. 다원예술위원회, '현장예술인들과의 만남1-다원예술낙선포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4
3. —, '현장예술인들과의 만남2-예술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5
4. —, '다원-지역 소위 합동포럼-지역은 또다른 비상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7
5. —, '현장예술인들과의 만남3-탈장르예술 비평을 비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8
6. —, '다원예술의 현재와 미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10
7. —, '다원예술 매개공간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5
8. —, '새장르 공공예술의 공공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6
9. —, '예술의 공공성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9
10. —,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호주의 다원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10
11. —, '진단과 모색-새로운 예술과 예술정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10
12. —, '다원예술 비평은 존재하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11
13. —, '마음과 예술: 새로운 예술의 현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11
14. —, '다원예술 지형도 그리기 제1차포럼-다원예술 현장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5
15. —, '다원예술 지형도 그리기 제2차포럼-다원예술 지원사업 제도의 성과,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6
16. —, '다원예술 지형도 그리기 제3차포럼-다원예술, 전망과 대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7
17. —, '다원예술지원정책 종합토론회 - 다원예술지원정책의 과제, 그리고 상상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9
18. 독립예술제 집행위원회 (1999), '대안의 길찾기'. 독립예술제 포럼.
19. 문화연대 (2000),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정책'
20.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02), '해외 프린지페스티벌 및 아시아 대안문화센터 운영사례'.

21.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03), ‘아시아 대안문화센터 현황과 발전 가능성’, 아시아 대안문화센터 심포지움.
22. 이광준, ‘비평과 담론을 요청하는 다원예술 현장’, 『2007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23. 이규석 (2005), ‘다원예술 10년, 발전적 전환기를 맞이한 2005년’, 『2006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24. 이미원 (2007), ‘2007년의 연극: 장르 파괴? 다원예술의 부상’, 『연극포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pp.344-364.
25. 이진아 (2007), ‘다원예술비평은 존재하는가’, 아르코웹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11

### 3. 일반 자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자 현황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자 현황표.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자 현황표.

### 4. 웹사이트

1. 가슴 네트워크 (웹진 가슴) [www.gaseum.co.kr](http://www.gaseum.co.kr)
2. 제주 거리예술제 - 머리에꽃을 <http://www.jcnf.net>
3. 킷클럽 네버마인드 <http://cafe.daum.net/clubnm>
4.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 버들미장원 [cafe.naver.com/buddlemizangwon](http://cafe.naver.com/buddlemizangwon)
5. 대안공간 반디 [www.spacebandee.com](http://www.spacebandee.com)
6.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funnystreet.cyworld.com](http://funnystreet.cyworld.com)
7.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www.indianbob.net](http://www.indianbob.net)
8. 매개공간 미나리 [www.memispace.org](http://www.memispace.org)
9. 문화쉼터 시지프스의 하늘 <http://saebyeok.communeart.net>
10. 문화잡지 보일러 <http://cafe.naver.com/voila.cafe>
11. 물레아트페스티벌 <http://cafe.naver.com/mullaeart/>
12. 물레예술공단 <http://cafe.naver.com/mullaeartvillage>
13.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www.stonenwater.org](http://www.stonenwater.org)
14. 서울변방연극제 [www.mtfestival.com](http://www.mtfestival.com)
15. 서울프린지네트워크 [www.seoulfringe.net](http://www.seoulfringe.net)
16. 서울프린지페스티벌 [www.seoulfringefestival.net](http://www.seoulfringefestival.net)
17. 스페이스 빔 [www.spacebeam.net](http://www.spacebeam.net)
18. 일상예술창작센터 프리마켓 [www.freemarket.or.kr](http://www.freemarket.or.kr)
19. 자파리연구소 <http://blog.naver.com/terrorj>
20. 하이브 캠프 [club.cyworld.com/hivecamp](http://club.cyworld.com/hivecamp)
21. 한국실험예술정신 <http://kopas08.cafe24.com>
22. 후용공연예술센터 [www.nottle.co.kr](http://www.nottle.co.kr)
23. 스페이스 배 [www.spacebae.com/](http://www.spacebae.com/)
24. 연극자리 소풍 <http://cafe.naver.com/yichunspace>
25. CJ 영페스티벌 [www.cjyoungfestival.net](http://www.cjyoungfestival.net)
26. KT&G 상상마당 [www.sangsangmadang.com](http://www.sangsangmadang.com)



27. LIG 아트홀 [www.ligarthall.com](http://www.ligarthall.com)